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4466-01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심리적 특성 탐색 연구
- 최종보고서 -

Research on Exploring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2023. 10

연구책임자 : 이 송 이

공동연구원 : 이 상 회

권 영 민

김 유 천

심 태 은

이 선 영

정 민 호

하 오 선

목차

1. 연구분담표	7
2. 연구추진 일정	8
1) 연구설계 및 문헌연구	8
(1) 연구설계	8
(2) 문헌연구	13
2) 연구집단섭외(분석 대상자 선정)	19
(1) 연구진행과정	19
3) 심리검사 결과	22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22
(2) 심리검사 하위변인 및 분석방법	23
(3) 간이정신진단검사 결과	23
(4) 스트레스 검사결과	27
(5) 농업인의 삶의 질의 결과	28
(6)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상관관계	30
4) 주관성연구 결과	31
(1) 독거노인 농업인의 심리적 특성 결과	31
(2) 농촌 독거노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메타분석	42
(3) 다문화 가구 농업인의 심리적 특성 결과	46
(4) 귀농인의 심리적 특성 결과	53
5) 결론 및 제언	61
【참고문헌】	65

표 목 차

<표 1> 인터뷰 대상(합천, 서산, 안성, 강화).....	19
<표 2> 심리검사 및 주관성 연구 (남원, 충주, 일죽, 충남태안, 강화).....	20
<표 3> 연구진행 일정표.....	22
<표 4> 설문 응답자 배경.....	22
<표 5> 스트레스 및 삶의 질 설문 주요 항목 및 응답유형.....	23
<표 6> 정서문제영역의 하위 문제별 평균.....	24
<표 7> 현실적응문제영역의 하위 문제별 평균.....	24
<표 8> 기타영역의 하위 문제별 평균.....	25
<표 9> 귀농인의 사례별 간이정신진단검사 T점수표.....	25
<표 10> 다문화 농업인의 사례별 간이정신진단검사 T점수표.....	26
<표 11> 독거노인 농업인의 사례별 간이정신진단검사 T점수표.....	26
<표 12> 유형별 스트레스에 기술통계.....	27
<표 13> ANOVA 결과 유의확률.....	27
<표 14> 사후검증의 결과.....	27
<표 15> 유형별 정서적 만족에 기술통계.....	28
<표 16> ANOVA 및 사후검증의 결과.....	28
<표 17> 유형별 자아실현에 기술통계.....	29
<표 18> ANOVA 및 사후검증의 결과.....	29
<표 19> 유형별 자기존중 기술통계.....	29
<표 20> ANOVA 및 사후검증의 결과.....	30
<표 21> 스트레스와 삶의 질 평균과 표준편차.....	30
<표 22> 스트레스와 삶의 질 상관관계.....	30
<표 23> P-sample.....	32
<표 24> 4가지 유형 분류에서의 아이젠값과 설명변량.....	35
<표 25> 각 유형 간 상관관계.....	35
<표 26> 4가지 유형별 사람과 인자가중치.....	35
<표 27> 유형1의 진술문과 표준점수(± 1.00 이상).....	37
<표 28> 유형2의 진술문과 표준점수(± 1.00 이상).....	38
<표 29> 유형3의 진술문과 표준점수(± 1.00 이상).....	39
<표 30> 유형4의 진술문과 표준점수(± 1.00 이상).....	41

<표 31> 각 유형의 일치항목.....	41
<표 32> 연구대상 논문 및 효과크기.....	43
<표 33> 논문 형태별 효과 크기.....	44
<표 34> 농촌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효과 크기.....	44
<표 35> 농촌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효과 크기.....	45
<표 36> P-sample.....	47
<표 37> 3가지 유형 분류에서의 아이젠값과 설명변량.....	48
<표 38> 각 유형 간 상관관계.....	48
<표 39> 유형1에서 강한 동의와 비동의를 보인 진술문(> ± 1.00).....	50
<표 40> 유형2에서 강한 동의와 비동의를 보인 진술문(> ± 1.00).....	51
<표 41> 유형3에서 강한 동의와 비동의를 보인 진술문(> ± 1.00).....	52
<표 42> P-sample의 일반적 특성.....	54
<표 43> 3가지 유형 분류에서의 아이젠 값과 설명변량.....	56
<표 44> 유형 간 상관관계.....	56
<표 45> 각 유형별 인자가중치.....	56
<표 46> 유형 1에서 동의와 비동의를 보인 진술문과 표준점수 (Z-score > ± 1.00).....	58
<표 47> 유형 2에서 동의와 비동의를 보인 진술문과 표준점수 (Z-score > ± 1.00).....	59
<표 48> 유형 3에서 동의와 비동의를 보인 진술문과 표준점수(Z-score > ± 1.00).....	60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 조직도.....	7
[그림 2] 연구절차 및 내용.....	10
[그림 3] Q 방법론의 절차.....	12
[그림 4] Q 방법론의 절차 : 독거노인 농업인.....	31
[그림 5] 연구대상 논문 선정과정 : PRISMA flow diagram.....	42
[그림 6] 지속가능한 농업 커뮤니티.....	63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심리적 특성 탐색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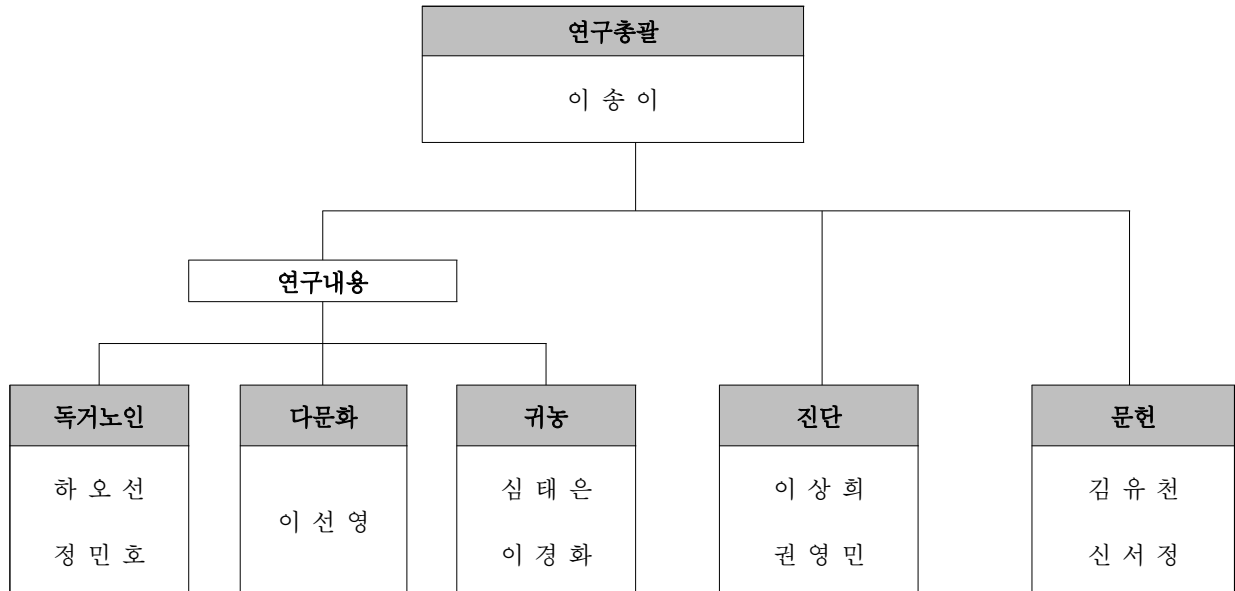
Research on Exploring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요약】

연구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정부의 핵심추진과제(국정과제 70-1번(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인 ‘농촌 의료·돌봄·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농촌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분야 기초자료가 필요함 ■ 이에 농업인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접근하는 심리적 영역이 달라 이들을 위한 심도 깊은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함 ■ 또한, 농업인의 심리적 웰빙 케어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대상에 따라 이들의 현 심리상태를 이들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마련되어야 함 ■ 즉, 하위집단인 독거노인 농업인, 다문화 가구 농업인, 귀농인 등 현재 심리적 특성에 탐색을 하고자 함 ■ 결과적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리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의 심리적 특성 조사를 위한 연구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의 심리적 특성을 조사함에 있어서, 기존의 심리검사 도구활용과 농업인 대상 주관적 인식을 살펴보는 방식을 설계하여 이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심리적 특성 조사 및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정신진단검사II(KSCL95)를 통하여 독거노인, 다문화 가구 농업인, 귀농인 등 농업인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 Q 방법론을 활용한 독거노인 농업인, 다문화 가구 농업인, 귀농인 등 농업인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 심리적 조사 및 진단 평가 결과 종합 및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적 조사 및 진단 결과를 도출 -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정책 제안 및 향후 활용 방안 제안 ❖ 연구대상인 하위집단이 여성, 다문화 가구, 귀농인에서 독거노인 농업인, 다문화 가구 농업인, 귀농인으로 수정됨. 이는 착수보고회에서 농림축산부 측의 의견을 수렴한 것임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의 대상 특성에 맞는 심리상태 탐색을 통하여, 이들이 지니고 있는 스트레스 및 심리적 어려움의 평가 및 해석이 가능함. 또한 이들이 지니고 있는 강점을 개발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농업인의 심리상태에 따른 대상별 심리케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여 심리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1.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구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연구총괄	동국대학교	조교수	이송이			
간이정신 진단 검사 II 및 해석	동국대학교	부교수	이상희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권영민			
독고노인 농업인 삶의 질에 대한 메타분석	동국대학교	조교수	김유천	동국대학교	석사과정	신서정
귀농인 심리특성 주관성 연구	동국대학교	조교수	심태은	동국대학교	박사과정	이경화
다문화 가구 농업인 주관성 연구	동국대학교	연구교수	이선영			
독고노인 농업인 주관성 연구	동국대학교	초빙교수	정민호			
	동국대학교	연구교수	하오선			



[그림 1] 연구 조직도

2. 연구추진 일정

구 분	월별 추진 일정						비 고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연구설계 및 문헌연구							
연구집단섭외(분석 대상자 선정)							
심리검사 및 주관성 연구							
심리적 특성 파악 분석 연구							
분석평가 및 연구 기반 프로그램 제안							
정책 제안 및 최종보고서 작성							
추진진도 (%)	10	10	20	30	20	10	100

1) 연구설계 및 문헌연구

(1) 연구설계

가. 연구 필요성

- 정부는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을 2004년 3월 제정하고,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의 수립을 추진해 오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정과제 중 ‘농어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과제목표 역시 ‘농촌공간의 쾌적성 및 편리성을 높이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을 과제 목표로 하고 있음(조원지, 2022)
- 농업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이 큰 요인은 주관적인 건강인식, 교육수준, 스트레스 수준으로 나타나,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건강관리 등을 통한 건강인식 향상과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을 통한 스트레스 최소화가 필요함(이현경 외, 2019)
- ‘삶의 질’ 은 개인의 욕구, 인간다운 삶 등 개인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이 만들어낸 개인의 삶의 결과를 의미하며, 개인을 둘러싼 객관적인 생활여건과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로 삶의 질을 측정하게 됨
- 농업인의 주관적 삶의 질 수준과 관련하여 황영모(2008)가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경제적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편리한 삶, 쾌적한 삶, 안정된 삶, 즐거운 삶의 영역에 국한 되었음. 이 중 안정된 삶에서 가족관계의 수준을 살펴보고자 하였지만, 전반적인 심리적 삶의 질을 살펴 보는데는 한계가 있음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안전보건정책에 대한 내용 중 농업인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중 삶의 질에 대한 관련 내용이 농촌 복지교육기반 확충으로 심리적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내용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 농업인의 삶의 질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농촌의 지리 및 물리적 측면과 사회, 문화, 경제 등의 다차원적인 환경 측면뿐만 아니라 이들의 개인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심리케어 관련 사업은 미비함
- 또한 과소화, 고령화된 농촌 맞춤형 의료·돌봄 서비스 정책 추진에 있어 농업인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관리 필요성 고조되고 있음
- 현 정부의 핵심추진과제(국정과제 70-1번(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인 ‘농촌 의료·돌봄·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농촌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분야 기초자료 필요함
- 특히, 정신건강의 중요성 및 사회적 관심 증가에 따라 농업인 대상 심리케어 프로그램 개발 및 이를 활용한 정책접근 필요성 대두되고 있음
- 기존 농업인 의료복지는 주로 신체적 질환 위주로 지원되었으며, 심리건강에 대한 접근은 상대적으로 소홀함
- 농업인 정신건강 케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심리상태 현황조사, 심리분석지표 등 농업인 정신건강에 대한 기초자료 마련이 요구됨
- 따라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심리적 웨빙 케어 방안이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모색되어야 함.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이들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이들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제안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음
- 농업인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연구 중 미혼남성농업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정현숙(2010)에 진행되었고, 그 연구결과, 이들에게 중요한 정서적 도움을 주는 관계망에 대한 의의를 제공하였으나, 농업인의 다양한 하위집단별 특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농업인의 정신건강은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환경적 요인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는데, 외국의 경우 Deegan, A., & Dunne, S.(2022)의 연구에서 농업인의 심리적 안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짐
- 농업인의 경우 개인의 특성에 따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다르게 모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특성에 맞는 심리케어 방안이 부재함
- 따라서, 농업인의 심리적 삶의 향상을 위하여 독거노인 귀농인, 다문화인구 농업인, 귀농인 등의 대상별 심리적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하위집단별 농업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

방안을 마련하고, 심리적 케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나. 연구내용

■ 농업인의 심리적 특성 조사를 위한 연구설계

- 농업인의 심리적 특성을 조사함에 있어서, 기존의 심리검사 도구활용과 농업인 대상 주관적 인식을 살펴보는 방식을 혼합 설계하여 이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하위집단별 대상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독거노인 농업인, 다문화 가구 농업인, 귀농인 등의 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상을 문헌연구를 통하여 조작적 정의할 수 있도록 함
- 즉, 다음과 같은 여성, 다문화 가구, 귀농인 관련 정의를 기반으로 각 하위집단별 특성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본 사업에서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 심리적 특성 조사 및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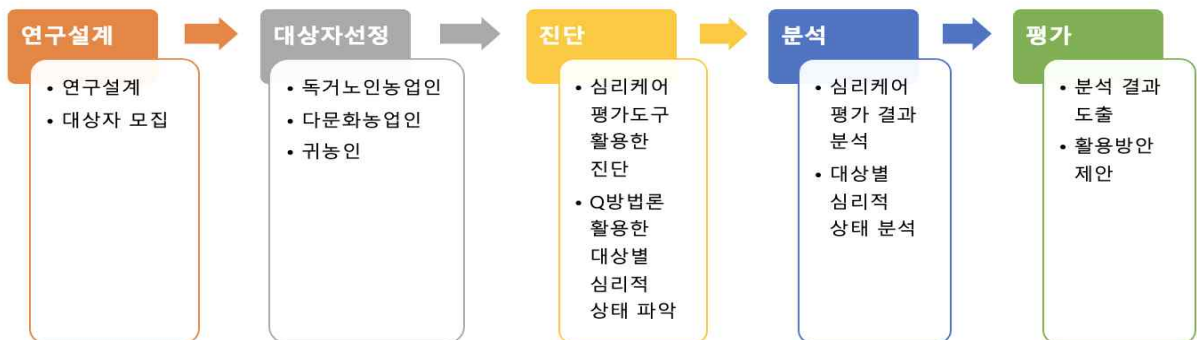
- 간이정신진단검사 II (KSCL95)를 통하여 독거노인 농업인, 다문화 가구 농업인, 귀농인 등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 Q 방법론을 활용한 독거노인 농업인, 다문화 가구 농업인, 귀농인 등 농업인의 주관적인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 심리적 특성 분석

- 간이정신진단검사 결과를 통하여 심리적 특성 결과 분석
- Q 방법론을 통한 독거노인 농업인, 다문화 가구 농업인, 귀농인 등 대상별 주관적 심리 상태 분석

■ 심리적 조사 및 진단 평가 결과 종합 및 제안

- 심리적 조사 및 진단 결과를 도출
-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정책 제안 및 향후 활용 방안 제안



[그림 2] 연구절차 및 내용

■ 문헌연구

- 문헌연구를 통한 독거노인 농업인, 다문화 가구 농업인, 귀농인 등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설정하고자 함. 문헌연구는 주어진 연구주제에 대한 책, 논문 등 인쇄된 자료의 소재를 파악하여 종합하고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 중복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개념을 문헌연구를 통하여 명확하게 하고자 함

■ 간이정신진단검사Ⅱ(KSCL95) 검사 및 분석

- 본 검사는 주요 임상심리적 문제증상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검사로 ‘다수 인원의 대집단 정신건강 실태조사’ 또는 상담센터 또는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는 ‘내담자의 문제증상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상담효과를 추적하는 사전·사후검사로 활용하기에도 좋은 Check list임. 본 검사는 95문항으로 구성되어 15분~20분의 짧은 시간 안에 검사 실시 및 결과처리까지 완료할 수 있으며 현재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의원 및 지역정신 건강증진센터, 대학상담센터, 중·고교 Wee센터, 대기업 인사담당 부서, 상담센터 및 교정기관 등에서 활용되고 있음 (출처, 중앙적성연구소 홈페이지; 권선중,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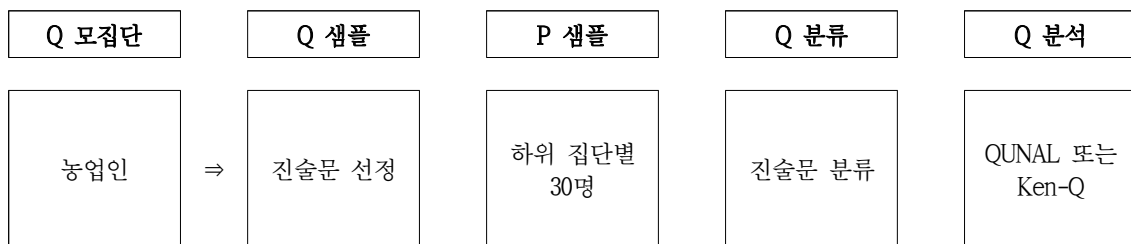
- 검사의 특징

- ① 정신건강 분야의 최신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증상 평가영역 확장’ : 기존 검사가 평가하던 정신건강 영역을 수정 보완하고 신규 영역을 포함시켜 좀 더 다양한 증상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함. 특히 DSM-5(APA, 2013)에서 ‘교차 증상(cross-cutting symptom)’ 평정 영역으로 소개한 13가지 영역 중에서, 정신건강 관련 증후군으로 분류 가능하며 기존 검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영역 5가지(조증, 자살, PTSD, 중독, 수면문제)를 포함시켰음 (권선중, 2014)
- ② ‘타당도 척도 포함’ : 본 검사에 무작위로 응답하거나 증상을 감추려는 양상을 탐지하기 위해 비밀관성 척도와 긍정왜곡 척도를 포함시켰음 (권선중, 2014)
- ③ ‘측정 문항을 개선하고 추가’ : 두 가지 의미(혹은 이중표현)를 담은 문항이나 학력이 낮은 사람들(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이 한 번에 뜻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항, 예전 정신병리 준거를 반영하는 문항 등을 제거하거나 개선함. 특히 기존 문항을 개선하거나 추가된 증상을 측정하는 신규 문항을 포함시킬 때, DSM-5(APA, 2013)와 같은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하였음 (권선중, 2014)
- ④ 2013년 인구통계분포를 반영한 약 5천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작 : 이와 같은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본 검사도구의 주요 용도인 ‘선별(screening)과 효과평가’에 유용하도록 100문항을 넘기지 않았음(95문항). 따라서 특히 대규모 선별평가나 개입의 효과를 반복 측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 간이정신진단검사Ⅱ(KSCL-95) 검사를 하위집단별로 실시하고 분석하여 기술적인 통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권선중, 2014)

■ Q방법론을 통한 대상별 심리적 상태 파악

- Q방법론은 인간의 다양한 주관성을 탐구하는 연구방법으로, 주관성이란 ‘타인 혹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것’ 으로, Q방법은 응답자 스스로가 자극들(대개 진술문)을 비교하여 그 순서를 정함으로써 이를 모형화 시키고, 결국 그의 주관성을 스스로 표현해가는 것임 (김홍규, 2008).
- 연구방법인 동시에 분석방법인 Q방법론은, 먼저 연구자가 의도하는 변인을 정의한 다음 그 변인을 대표하는 진술문을 작성하고(Q모집단 및 Q표본의 선정), 준비된 진술문에 반응할 사람을 선정하고(P표본의 선정), 선정된 사람으로 하여금 준비된 진술문을 정상 분포 또는 준정상분포가 되도록 강제분류하게 하여(Q분류), 그 결과를 가지고 분류한 사람들 간에 상관계수를 산출하고 이 상관계수 행렬을 요인분석하여 요인을 추출, 해석함으로써 사람들의 주관성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됨(김홍규, 2008).
- Q모집단은 특정 주제에 대한 총체적 생각으로, 이 연구에서는 ‘심리적 특성’ 에 관한 인식을 의미함. 본 연구는 Q모집단을 ‘심리적 특성’ 관련 선행연구 및 농업인 대상 인터뷰를 실시하고, 이 모집단 중 대표성과 포괄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진술문을 Q표본으로 선정하고자 함
- Q분류는 연구참여자별 1회씩 진행하는 것으로, 연구자들과 어떤 이해관계가 없는 대상을 참여자로 선정할 것임
- P sample인 농업인 하위집단별로 Q-sorting(Q 분류)한 자료는 QUNAL프로그램 또는 Ken-Q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함



[그림 3] Q 방법론의 절차

다. 본 사업의 목표설정

- 농업인(독거노인, 다문화 가구 농업인, 귀농인)의 대상 특성에 따른 심리상태 분석
- 농업인(독거노인, 다문화 가구 농업인, 귀농인)의 심리케어 방안 탐구를 위한 기본 자료 분석

- 농업인(독거노인, 다문화 가구 농업인, 귀농인)의 개별 집단에 대한 세부 접근을 통하여 농업인 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농업인(독거노인, 다문화 가구 농업인, 귀농인)의 삶의 질 향상 방안 모색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문헌연구

가. 독거노인 농업인

-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 제5조에 근거한 법정조사로 2007년 법제화 이후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수행되고 있음. 2020년 다섯번째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독거노인과 관련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이윤경 외, 2020)
 - 노인의 19.8%가 노인독거가구이며, 노인부부가구 58.4%, 자녀동거가구 20.1%, 기타가구 1.7%로 노인부부가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남자노인의 9.7%가 노인독거가구인 것에 비해 여자노인은 27.4%로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남
 - 노인독거가구보다 노인부부가구와 자녀동거가구가 평소의 건강상태를 좋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
 - 노인 독거가구의 우울증상 비율이 18.7%, 자녀동거가구 16.8%, 노인부부가구 10.4%로 독거노인의 우울증 비율이 높은 편임
 - 노인단독가구의 경우(독거+부부가구) 약 1/3이 자녀의 결혼으로 인한 것이며, 개인 생활 향유 및 기존 거주지에서의 생활 희망과 같은 노인 개인적 차원의 욕구나 특성에 기인한 것이 약 2/3을 차지함
 - 노인 단독가구 생활상의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40.9%이나 독거노인 및 후기노인의 경우 약 80%가 어려움을 경험함 (보건복지부, 2022)
 - 노인 단독가구 생활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아플 때 간호문제(23.7%)와 경제적 불안감(13.3%), 일상생활 문제처리(9.9%) 순으로 나타남
 - 노인의 85.6%는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4.9%는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호 호혜적인 양상을 보임
 - 가족 등에 의해 보호를 받는 노인의 도움 충분성은 응답자의 41.0%가 (매우)충분하다고 인식했지만 무배우자 노인(26.8%), 독거노인(37.1%)의 경우 도움이 부족하다는 응답률이 높아 향후 정책적 관심의 필요성이 제기됨
 -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우울증상 비율이 41.8%로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의 우울증상 비율 10.0%에 비하여 네 배 이상 더 높은 수준임
 - 노인의 전반적인 경제, 건강 상태는 양호해지고 있으나, 여전히 독거노인, 후기노인,

여자 노인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층에 대한 관심 필요함

-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긍정적일수록 우울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여성일 경우 남성에 비해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최세영, 2020), 노인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문지현, 김다혜, 2018; 김자영, 2017).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으며, 혼자 사는 노인이 인지 장애와 관련이 있음을 발견함(Kim et al., 2019)
- 동양 문화권의 개인이 서양 문화권의 개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았고 노인 가구 노인의 절반 이상이 노년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있음. “심하게 우울한” 프로파일은 전체 샘플의 10.9 %로 구성되었으며 샘플의 2.9 %는 “극도로 우울한” 것으로 분류됨(Park et al., 2021)
- 노화 자체가 반드시 삶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킨다는 증거는 없으며 삶의 만족의 중요한 요소는 건강 자기 평가로 나타남(Kutubaeva RZ., 2019)
- 독거노인은 부부가구 노인이나 자녀동거가구 노인에 비해 주변으로부터의 도움을 받을 기회가 적으며, 위축된 사회적 지지망으로 인해 취약한 사회적 특성을 가지게 되고(Smith, Borchelt, Maier, & Jopp, 2002), 결혼했거나 파트너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독신자들보다 자신의 행복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Buber & Engelhardt, 2008)
- 독거기간은 생활상의 다양한 사건을 이유로 홀로 생활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심리 사회적 문제와 연관이 되어있으며 우울, 자살사고 등 심각한 노인 문제와도 관련(김진실 외, 2022). 독거기간은 우울의 예측 요인으로 확인되며(장덕희, 이경은, 2013) 독거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살생각이 강해지고 경제 상태,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에 있어 취약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됨(정순돌, 정세미, 김솔지, 김은주, 주경희, 2018)
- 여성 독거노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 우울과 건강증진행위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자아존중감과 건강증진행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들의 우울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건강증진행위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이종화, 2005), 여성 독거노인의 지각된 건강상태가 낮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다고 봄(송은경, 손연정, 2011).
- 여성독거노인의 생활적응 유형을 Q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현실극복 자립형, 현실 부정 체념형, 현실수용 순응형으로 분류되었고(신혜숙, 2007), 여성 독거노인들의 우울증에 대한 경험 연구 결과 여성독거노인들은 혼자 남겨진 후, 외로움과 고통으로 거칠고 메말라 버린 삶을 헤쳐 나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 다니는 과정임을 확인함(원미라, 2013)
- 농촌 여성 독거노인의 성공적인 노화의 의미를 현상학적으로 연구한 결과 성공적 노화의 의미는 ‘약함에 대한 감사’, ‘낙관속의 편안함’, ‘가난/고독과 친구하기’, ‘순리에 몸맡기기’, ‘시비에서 벗어난 초연함’, ‘소소한 일상의 향유’, ‘경륜의 확장’, ‘위대한 용서’ 라는 8개의 본질적 주제로 결집됨(하민정, 이혁구, 2019)

- 농촌 여성 독거노인의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감소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감소했고, 공동거주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공동거주제를 이용할 경우 전반적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공동거주제를 이용할 경우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저하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함(김진실, 이현주, 박소정, 2022)
- 농촌 독거노인의 사회적지지 즉 가족지지, 친구지지, 타인지지는 성공적 노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우울 또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침(전현정, 2016)
- 중국 농촌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의 자살 생각 유병률은 23.6%였고, 우울증은 독거노인의 자살 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신체적, 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원, 불안 및 자살 생각 사이의 중재변인이었으며. 불안과 사회적 지원은 자살 생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신체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Hu et al., 2020)
- 농촌의 고령화는 도시의 고령화 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2021년 기준 65세 비율이 가장 높은 46.8%에 이르렀고, 60세 이상은 약138만 명으로 전체농가 인구의 62.4%를 차지(통계청, 2021년 농림어업조사). 이중 19.8%가 노인독거가구임(이윤경 외, 2020)
- 노년기에 나타나는 역할 상실, 능력감퇴, 사회적 접촉의 감소와 고립 등에 대한 완충지대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가족 또는 배우자가 없다는 점에서 특히 독거노인, 농촌노인, 여성노인은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삶의 질의 수준이 낮아 특별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하위집단으로 특화된 정책마련이 필요함(신혜숙, 2007). 하지만 독거노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분석한 연구가 매우 부족함
- 이러한 시점에서 독거노인 농업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탐색하여 그들의 주관적인 경험 유형을 밝힐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Q방법론적 접근을 통해 양적, 질적 접근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대상자의 주관성 관점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으로 독거노인 농업인의 심리적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함
- 연구결과는 독거노인 농업인을 지원하고 심리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공적 서비스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나. 다문화 가구 농업인

- 다문화 가구는 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귀화자 포함)과 혼인한 결혼이민자가 존재하는 일반가구(다문화 대상자의 자녀가 있는 가구도 포함)를 의미함. 2020년 기준으로 다문화 가구는 일반 가구의 1.8%인 37만 가구이며, 2015년 대비 2020년 다문화 가구의 증가율(22.9%)은 일반 가구 증가율(9.5%)의 2.4배에 이르고 있음(국토교통부)
- 일반가구의 수도권 비율이 48.9%인데 반해 다문화 가구의 수도권 비율은 56%로 수도권에

밀집해 있으며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는 5년 동안 15% 이상 다문화 가구가 증가함. 충북, 충남, 전북, 전남의 전통적인 농촌 지역 역시 국제결혼의 영향으로 다문화 가구의 비율이 높음(통계청)

-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구에 대한 역사는 오래되지 않는데 비해 다문화 가구의 확산은 빠르게 진행되어 왔으며, 다문화 가구를 이루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의 증가로 볼 수 있음. 특히 1990년대부터 농촌사회를 중심으로 국제결혼 알선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 다문화 가구가 확대됨
- 결혼 이민자와 혼인 귀화자는 출신 국가에 따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동북아시아 출신 결혼 이민자와 혼인 귀화자는 주로 수도권에 분포하고,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 이민자와 혼인 귀화자는 전통적인 농촌 지역에 분포하는 양상이 나타남 (국토교통부, 2021)
- 본 연구에서 다문화 가구 농업인은 행정구역상의 읍·면 지역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국제결혼 등을 통해서 서로 다른 국적·인종이나 문화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의 일원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지칭함
- 세계적으로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이주화 현상 속에서 다문화 가구의 증대는 필연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다문화 가구들은 경제적 빈곤, 사회적 부적응, 민족 및 인종 차별, 국제결혼 자녀의 차별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음 (홍형욱, 2013)
- 다문화 가구에 대한 선행 연구는 다문화 가구 구성원 특히 다문화 가구의 아동 또는 이주 여성의 생활 적응, 사회적·문화적 만족도 등을 통하여 관련 정책의 문제나 시사점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그리고 농촌 지역에 대한 다문화 가구에 대한 연구는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국내로 이주해 온 외국 출신 여성을 의미하는 여성 결혼 이민자 중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양승민(2009)의 연구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의 적응과정에서의 문제는 가부장적이고 위계적인 가족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한국사회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 규준은 여전히 가부장적인 질서를 미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특히 보수적인 농촌지역의 경우 위계적인 가족 구조가 더욱 강조 됨
- 이은경, 나승일(2009)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직면해 있는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빈곤, 사회·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차별 등이라고만 보고해 오고 있으며, 결혼이민 여성농업인들은 결혼과 함께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하여 농촌 생활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임
- 김진희, 박옥임(2008)은 전라남도에서 거주하는 농촌과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를 측정하였는데, 농촌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은 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 배우자의 성격문제갈등, 성관련 문제갈등, 배우자의 가족문제갈등,

배우자의 애정문제갈등, 경제적 문제갈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임

- 박대식, 마상진, 권인혜(2011)는 농어촌으로 유입되는 대부분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와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농어촌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사회 적응실태와 문제점을 경제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측면의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특성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심리적 적응 실태에서 심리적 안정 수준은 남편, 시부모, 여성 결혼 이민자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결혼 이민자의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본인의 문화적응 노력, 가족·친척지지, 친구·이웃지지, 한국거주기간, 거주 지역이역으로 나타남
- Athena K. Ramos외(2015)는 농촌 지역의 이주 농장 노동자에 대하여 우울증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자 연구를 진행함. 이주 농장 노동자는 일하기 위해 농촌 지역으로 오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인구이지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나타남
- 다문화가족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된 2000년대 초반부터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과 2010년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 시행되면서 다문화가족 정책이 본격화 됨.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부터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영유아기부터 초·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 등 사회로 진출하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여성가족부). 또한 다문화가족 정책의 일환으로 농림부,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농촌 지역의 다문화가족에 특화된 사업도 추진되고 있음
- 다문화 가구와 관련된 기존 선행 연구들이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지만, 농촌 지역의 다문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2010년 이후부터는 농촌 다문화가족에 초점을 둔 연구 자체가 현저히 감소하였음. 또한 농촌 지역의 다문화가족이 아닌 다문화 가구 농업인의 명확한 대상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고, 더구나 다문화 가구 농업인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한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
- 다문화 가구 농업인은 최근 농촌사회 변화의 핵심요인이 되고 있고 한국사회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정책 논의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회집단으로 판단되고 있음. 이처럼 농촌지역의 다문화 가구 농업인이 가지는 특수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에 따른 사회서비스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촌 다문화가족의 구성변화에 따라 다문화 가구 농업인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고 심리적 특성에 관한 분석을 하고자 함

다. 귀농인

- 귀농인은 동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 기간 중 읍면지역으로 이동하여,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명부(농업경영체등록명부, 농지원부, 축산업등록명부)에 등록된 사람임(통계청)
- 귀농은 농촌을 떠나서 2차 3차 산업에 취업했던 인력이 불황으로 인해 직업을 잃은 노동력의 환류나 정년퇴직하거나 권고사직당한 자의 농촌 복귀 등을 의미하고(이철수, 2009), 또한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함(김정섭, 2009)
- 강대구(2006)와 고성준(2007)의 연구에서는 농촌으로 돌아와서 규모에 상관없이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귀농’이라고 함
- 농림축산부는 귀농에 대해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귀농·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귀농가구는 10,923가구로 전년의 11,220가구보다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1년부터 3년 연속 10,000가구 이상 귀농해 귀농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음(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4)
- 역귀농도 일어나고 있는데, 김성수(2014)에 의하면 그 이유로 농업기술 부족으로 인한 낮은 소득, 영농기반 부족, 열악한 정주여건, 기존주민과의 갈등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고, 또한 소득이 생각보다 적어서, 농지나 농기계 등 영농기반을 갖추기 힘들어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만한 일자리가 부족해서, 도시와 달리 불편한 정주여건 및 자녀교육 어려움, 가족의 부적응, 현지 주민들과의 갈등 등이라고 함
- 귀농가구가 농촌사회 적응에 실패하여 역귀농 할 경우 농촌 이주를 위해 지출한 개인적 비용 손실과 귀농가구를 유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사회적 비용 손실로 이어져 결국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문승태, 김소라, 2012)
- 귀농인의 정주만족도 실태를 살펴보면 의료보건시설에 대한 만족, 문화시설에 대한 만족, 기존 농민과의 대인관계 만족, 농촌발전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만족,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 영농생활에 대한 만족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최윤지, 황정임, 신호연(2014)는 귀농인의 정주만족도 현황 및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귀농 특성 변인에 따른 정주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귀농 전 전업주부·은퇴자·무직자, 귀농 투자 자본금이 적은 귀농인이 생활시설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를 높게 지각한다는 것은 고무할만한 결과임
- 김세혁, 김현, 김태균(2022)은 귀농인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적 귀농 동기가 강할수록, 단독 귀농을 한 가구보다 가족과 동반 이주를 한 가구, 귀농과 관련된 부채와 귀농 후 주변인들과의 불화가 없는 경우, 귀농 귀촌 관련 교육

참여 시간과 지역 활동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월 평균 생활비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제 만족도가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남

- 김백수, 이정화(2013)은 귀농인의 심리적 복지감, 결혼만족도, 마을 공동체의식은 전반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높았다고 밝힘
- 전미리(2022)는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는 귀농·귀촌 정책을 통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농촌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는데,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과의 갈등문제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힘

2) 연구집단섭외(분석 대상자 선정)

(1) 연구진행과정

- 본 연구에서 인터뷰는 4지역(합천, 서산, 안성, 강화)에서 총16명을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귀농대상으로 진행되었음
- 본 연구에서 심리검사는 5지역(충주, 일죽, 태안, 강화)에서 총90명을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귀농대상으로 진행되었음
- 본 연구에서 주관성 연구는 5지역(충주, 일죽, 태안, 강화)에서 총90명을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귀농대상으로 진행되었음

<표 1> 인터뷰 대상 (합천, 서산, 안성, 강화)

번호	하위집단	성별	나이	지역	인터뷰날짜
1	독거노인	여	84	경상도 합천	23년6월22일
2		여	74	경상도 합천	23년6월22일
3		여	88	경상도 합천	23년6월22일
4		여	84	경상도 합천	23년6월22일
5		여	89	경상도 합천	23년6월22일
6		남	75	충청도 서산	23년6월19일
7	다문화	남	82	충청도 서산	23년6월19일
8		여	29	충청도 서산	23년6월19일
9		남	42	충청도 서산	23년6월19일
10		여	33	경기도 안성	23년6월26일
11	귀농	남	47	경기도 안성	23년6월26일
12		남	45	강화도	23년7월9일
13		여	38	강화도	23년7월9일
14		남	39	강화도	23년7월9일
15		여	35	강화도	23년7월9일
16		남	31	강화도	23년7월9일

<표 2> 심리검사 및 주관성 연구 (남원, 충주, 일죽, 충남태안, 강화)

번호	하위집단	성별	나이	지역	연구날짜
1	독거노인	여	79	충청도 충주	23년7월14일
2		여	81	충청도 충주	23년7월14일
3		여	68	충청도 충주	23년7월14일
4		여	81	충청도 충주	23년7월14일
5		여	82	충청도 충주	23년7월14일
6		남	82	충청도 충주	23년7월14일
7		여	84	충청도 충주	23년7월14일
8		여	69	충청도 충주	23년7월14일
9		여	83	충청도 충주	23년7월14일
10		남	79	경기도 일죽	23년7월28일
11		여	76	경기도 일죽	23년7월28일
12		여	82	경기도 일죽	23년7월28일
13		여	67	경기도 일죽	23년7월28일
14		여	76	경기도 일죽	23년7월28일
15		여	73	경기도 일죽	23년7월28일
16		여	89	경기도 일죽	23년7월28일
17		여	77	경기도 일죽	23년7월28일
18		여	81	경기도 일죽	23년7월28일
19		여	80	경기도 일죽	23년7월28일
20		여	88	경기도 일죽	23년7월28일
21		여	77	경기도 일죽	23년7월28일
22		여	80	경기도 일죽	23년7월28일
23		남	75	경기도 일죽	23년7월28일
24		여	87	경기도 일죽	23년7월28일
25		여	79	경기도 일죽	23년7월28일
26		여	84	경기도 일죽	23년7월28일
27		여	80	경기도 일죽	23년7월28일
28		여	76	충청도 태안	23년8월14일
29		남	82	충청도 서산	23년8월14일
30	남	75	충청도 서산	23년8월14일	
31	다문화	여	34	충청도 충주	23년7월14일
32		여	33	충청도 충주	23년7월14일
33		여	36	충청도 충주	23년7월14일
34		여	41	충청도 충주	23년7월14일
35		여	31	충청도 충주	23년7월14일
36		여	25	충청도 충주	23년7월14일
37		여	31	충청도 충주	23년7월14일
38		여	34	충청도 충주	23년7월14일
39		여	41	전라도 남원	23년7월27일
40		여	22	전라도 남원	23년7월27일
41		여	38	전라도 남원	23년7월27일

42		여	32	전라도 남원	23년7월27일
43		여	35	전라도 남원	23년7월27일
44		여	35	전라도 남원	23년7월27일
45		여	30	전라도 남원	23년7월27일
46		남	55	전라도 남원	23년7월27일
47		여	36	전라도 남원	23년7월27일
48		여	37	전라도 남원	23년7월27일
49		여	35	전라도 남원	23년7월27일
50		여	43	전라도 남원	23년7월27일
51		남	43	전라도 남원	23년7월27일
52		여	31	전라도 남원	23년7월27일
53		남	57	전라도 남원	23년7월27일
54		남	50	경기도 일죽	23년7월28일
55		여	52	경기도 일죽	23년7월28일
56		여	38	충청도 태안	23년8월14일
57		남	56	충청도 태안	23년8월14일
58		남	48	충청도 태안	23년8월14일
59		여	29	충청도 서산	23년8월14일
60		남	42	충청도 서산	23년8월14일
61	귀농	여	55	충청도 충주	23년7월14일
62		여	55	충청도 충주	23년7월14일
63		여	58	충청도 충주	23년7월14일
64		여	61	충청도 충주	23년7월14일
65		여	56	충청도 충주	23년7월14일
66		여	51	충청도 충주	23년7월14일
67		여	62	충청도 충주	23년7월14일
68		남	66	충청도 충주	23년7월14일
69		여	57	충청도 충주	23년7월14일
70		여	65	충청도 충주	23년7월14일
71		남	68	경기도 일죽	23년7월28일
72		여	64	경기도 일죽	23년7월28일
73		여	72	경기도 일죽	23년7월28일
74		여	74	경기도 일죽	23년7월28일
75		남	71	경기도 일죽	23년7월28일
76		남	73	경기도 일죽	23년7월28일
77		남	75	경기도 일죽	23년7월28일
78		여	66	경기도 일죽	23년7월28일
79		여	71	경기도 일죽	23년7월28일
80		남	45	강화도	23년8월20일
81		여	38	강화도	23년8월20일
82		남	39	강화도	23년8월20일
83		여	35	강화도	23년8월20일
84		남	39	강화도	23년8월20일

85		남	64	강화도	23년8월20일
86		여	65	강화도	23년8월20일
87		남	30	강화도	23년8월20일
88		여	52	강화도	23년8월20일
89		여	41	강화도	23년8월20일
90		남	56	강화도	23년8월20일

〈표 3〉 연구진행 일정표

번호	날짜	지역	연구내용	연구대상
1	23년 6월19일	충청남도 서산	인터뷰	독거노인 (2) 다문화 (2)
2	23년 6월22~23일	경상남도 합천	인터뷰	독거노인 (5)
3	23년 6월26일	경기도 안성	인터뷰	다문화 (2)
4	23년 7월9일	강화도	인터뷰	귀농 (5)
5	23년 7월14일	충청북도 충주	간이정신진단검사II Q솔팅	독거노인 (9) 다문화 (8) 귀농 (10)
6	23년 7월27일	전라북도 남원	간이정신진단검사II Q솔팅	다문화 (15)
7	23년 7월28일	경기도 일죽	간이정신진단검사II Q솔팅	독거노인 (18) 다문화 (2) 귀농 (9)
8	23년 8월14일	충청남도 태안 / 서산	간이정신진단검사II Q솔팅	독거노인 (3) 다문화 (5)
9	23년 8월20일	강화도	간이정신진단검사II Q솔팅	귀농 (11)

3) 심리검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 연구대상자의 유형별 일반적인 배경은 다음의 <표 4>와 같음

〈표 4〉 설문 응답자 배경

구분		귀농인		다문화		독거노인	
		응답자(명)	비율(%)	응답자(명)	비율(%)	응답자(명)	비율(%)
성별	남자	12	41.4	7	23.3	4	13.8
	여자	17	58.6	23	76.7	25	86.2
연령	20대	0	0.0	3	10.0	0	0.0
	30대	5	17.2	16	53.3	0	0.0
	40대	2	6.9	5	16.7	0	0.0
	50대	8	27.6	6	20.0	0	0.0
	60대	8	27.6	0	0.0	2	6.9

구분	귀농인		다문화		독거노인		
	응답자(명)	비율(%)	응답자(명)	비율(%)	응답자(명)	비율(%)	
70대	6	20.7	0	0.0	9	31.0	
	0	0.0	0	0.0	17	58.6	
	0	0.0	0	0.0	1	3.4	
경력/학년	5년미만	2	6.9	9	30.0	0	0.0
	10년미만	5	17.2	4	13.3	2	6.9
	15년미만	10	34.5	8	26.7	3	10.3
	20년미만	10	34.5	5	16.7	2	6.9
	25년미만	2	6.9	3	10.0	1	3.4
	30년미만	0	0.0	1	3.3	2	6.9
	30년이상	0	0.0	0	0.0	19	65.5
	합계	29	100	30	100	29	100

(2) 심리검사 하위변인 및 분석방법

- 스트레스 검사 및 삶의 질 검사도구의 주요 항목과 문항수는 다음과 같음

〈표 5〉 스트레스 및 삶의 질 설문 주요 항목 및 응답유형

영역	주요 항목	응답유형	문항 수
스트레스	불안, 느낌, 식욕부진, 두통	오지선다형 (5점 Likert 척도)	4
			20
삶의 질	정서적 만족	오지선다형 (5점 Likert 척도)	10
	자아실현		6
	자기존중		7

(3) 간이정신진단검사 결과

- 농업인의 정신건강을 살펴보기 위해서 간이정신진단검사(KSCL95)Ⅱ를 실시하였음
- 본 검사는 주요 임상심리적 문제증상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검사로 '다수인원의 대집단 정신건강 실태조사' 또는 상담센터 또는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는 '내담자의 문제증상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심리검사도구임
- 본 도구는 3개의 하위 척도별 검사결과가 T점수로 제시되기 때문에 해당 증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함 : T=59 이하; 보통 수준(비문제 수준), T=60-69; 주의 및 위험 수준, T=70 이상; 문제 수준(정신건강 문제 발생 가능성이 시사되는 수준)
- 참고로, T점수란,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측정된 점수들을 비교-가능하도록 표준화한 표

준점수로, 평균 50, 1표준편차 10을 기준으로 해석함

① 간이정신진단검사의 3가지 문제 영역의 하위문제별 평균 결과

- 귀농인, 다문화, 독거노인의 간이정신진단검사 영역별 하위문제의 평균은 다음과 같음

<표 6> 정서문제영역의 하위 문제별 평균

정서문제영역											
구분	우울	불안	공포 불안	공황 발작	임소 공포	강박	강박증	강박 성격	PTSD	분노 공격	신체화
귀농인	47.13	49.03	49.03	47.63	50.10	51.57	49.87	52.97	49.67	48.23	47.40
다문화	43.63	45.23	48.93	49.60	48.67	48.10	47.77	49.17	48.53	45.70	43.17
독거노인	55.07	54.13	52.87	50.47	54.23	53.60	49.57	56.97	50.10	47.13	52.47
전체 평균	48.61	49.46	50.28	49.23	51.00	51.09	49.07	53.04	49.43	47.02	47.68

- <표 6>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농업인의 정서문제 하위영역별 T점수의 평균은 최저 43.17에서 56.97로, 보통수준(비문제 수준에) 해당함

- 즉, 연구에 참여한 농업인의 정서문제영역의 하위영역별 T점수의 평균은 모두 정상 수준으로 문제를 나타내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음

<표 7> 현실적응문제영역의 하위 문제별 평균

현실적응문제영역			
구분	조증	편집증	정신증
귀농인	56.30	47.10	48.10
다문화	57.63	45.50	49.97
독거노인	49.33	49.17	48.60
전체평균	54.42	47.26	48.89

- <표 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농업인의 현실적응문제 하위영역별 T점수의 평균은 최저 47.10에서 57.63으로, 보통수준(비문제 수준에) 해당함.

- 즉, 연구에 참여한 농업인의 현실적응문제 하위영역별 T점수의 평균도 모두 정상 수준으로, "문제를 나타내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음

〈표 8〉 기타영역의 하위 문제별 평균

기타영역						
구분	자살	중독	수면문제	스트레스 취약성	대인민감	낮은조절
귀농인	46.67	49.47	50.97	49.27	49.40	49.13
다문화	42.63	49.27	49.83	43.30	43.93	43.30
독거노인	53.20	47.87	60.13	49.83	50.13	49.67
전체평균	47.50	48.87	53.64	47.47	47.82	47.37

- 〈표 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농업인의 기타문제 영역의 하위별 T점수의 평균은 최저 42.63에서 60.13으로, 보통수준(비문제 수준에) 해당함
- 마찬가지로 연구에 참여한 농업인의 기타문제 하위 영역별 T점수의 평균도 모두 정상 수준으로, “문제를 나타내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음

② 간이정신진단검사의 사례별 평균 결과

- 본 연구에 참여한 귀농인, 다문화농업인, 독거노인 전체 90명의 간이정신진단검사 각 사례별 T점수는 다음의 〈표 9〉, 〈표 10〉, 〈표 11〉과 같음

〈표 9〉 귀농인의 사례별 간이정신진단검사 T점수표

하위 집단	지역	성별	정서문제영역										현실적응문제영역			기타영역							
			우울	불안	공포	공황	임소공포	강박	강박증	강박성격	PTSD	분노공격	신체화	조증	원집중	정신증	자살	중독	수면	스트레스	대인민감	낮은조절	
귀농	충청도	충주	남자	55	55	45	46	45	46	50	43	57	44	45	53	60	50	57	44	40	56	51	60
귀농	충청도	충주	여자	35	40	43	44	43	36	33	44	40	40	36	53	40	45	40	46	49	35	36	36
귀농	충청도	충주	여자	63	59	51	59	43	72	70	68	82	54	62	48	44	61	50	69	44	67	62	71
귀농	충청도	충주	여자	45	47	43	44	43	46	44	50	33	44	36	64	48	45	50	46	44	42	44	40
귀농	충청도	충주	여자	42	49	51	51	51	37	34	45	42	43	53	48	39	41	41	46	39	37	36	40
귀농	충청도	충주	여자	38	39	43	44	44	37	39	39	42	43	38	42	39	41	41	46	45	46	48	44
귀농	충청도	충주	여자	44	43	43	44	44	44	44	45	47	46	41	60	50	50	41	46	55	40	40	40
귀농	충청도	충주	여자	71	78	60	59	59	57	60	51	70	57	80	66	47	71	68	46	85	68	70	64
귀농	충청도	충주	여자	51	59	43	44	44	54	50	58	47	70	58	54	58	58	54	46	55	62	63	60
귀농	충청도	충주	여자	40	39	43	44	44	54	55	51	47	39	43	54	43	41	41	56	45	40	44	36
귀농	경기도	일죽	남자	67	66	55	63	45	74	71	71	44	48	70	92	44	50	62	65	83	58	59	56
귀농	경기도	일죽	여자	61	57	43	44	43	56	54	56	47	44	50	58	40	45	55	46	39	56	44	67
귀농	경기도	일죽	남자	55	55	60	46	73	53	40	66	63	51	47	53	48	42	41	44	65	60	64	56
귀농	경기도	일죽	여자	41	38	43	44	43	46	49	44	68	54	47	48	48	45	40	46	44	46	53	40
귀농	경기도	일죽	여자	41	59	43	44	43	66	65	62	68	57	38	53	40	45	40	46	70	58	66	49
귀농	경기도	일죽	남자	88	82	108	80	110	68	66	66	76	89	108	81	97	97	83	86	83	88	77	95
귀농	경기도	일죽	남자	47	51	45	46	45	59	60	54	63	44	50	64	52	42	46	44	65	49	51	47
귀농	경기도	일죽	여자	39	45	43	44	43	53	44	62	33	47	36	48	48	41	40	46	54	42	36	49
귀농	경기도	일죽	여자	43	38	47	52	43	40	44	38	33	47	50	37	40	41	40	46	39	35	36	36
귀농	강화도	여자	37	42	43	44	43	43	44	44	44	47	44	36	53	51	49	40	46	44	42	40	44
귀농	강화도	남자	47	43	45	46	45	53	40	66	44	51	39	42	52	50	41	44	46	49	47	51	
귀농	강화도	남자	40	38	44	45	44	41	41	43	44	46	43	58	46	42	42	43	41	41	45	37	
귀농	강화도	여자	40	45	47	44	51	51	44	58	42	46	41	54	47	41	54	46	39	48	48	48	
귀농	강화도	남자	35	35	42	44	43	45	43	48	35	37	35	52	38	40	39	41	39	34	35	35	
귀농	강화도	여자	50	51	47	44	49	49	48	50	52	51	42	59	47	50	49	45	40	59	53	64	
귀농	강화도	남자	40	39	63	44	78	68	69	61	41	37	51	80	38	40	39	63	56	34	35	35	
귀농	강화도	남자	38	46	61	44	73	54	58	48	49	50	40	55	39	41	42	43	40	48	56	40	
귀농	강화도	여자	39	44	43	44	43	54	43	68	47	40	34	70	43	57	40	67	45	47	48	47	
귀농	강화도	남자	42	52	42	44	43	64	64	60	49	47	38	40	45	41	42	43	45	54	56	51	
귀농	강화도	남자	40	37	42	44	43	27	30	30	38	37	35	50	42	41	42	43	51	37	39	36	
빈도	T=60~69		3	1	4	1	0	4	6	9	4	0	1	4	1	1	2	4	2	4	4	5	
	70 ≤ T		2	2	1	1	4	2	2	1	3	2	3	4	1	2	1	1	4	1	2	2	

- 귀농인의 경우, 정서문제 영역에서, 강박성격(F=9), 강박증(F=6)의 사례수가 T=60~69(주의/위험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현실적응 영역에서는 조증(F=4)의 사례수가 동일하게 T=60~69(주의/위험수준)과 70 ≤ T(문제수준)에서 나타났음

〈표 10〉 다문화 농업인의 사례별 간이정신진단검사 T점수표

하위 집단	지역	성별	정서문제영역										현실적응문제영역			기타영역						
			우울	불안	공포	공황	임소공포	강박	강박증	강박성격	PTSD	분노공격	신체화	조증	편집증	정신증	자살	중독	수면	스트레스	대인민감	낮은조절
다문화	충청도 충주	여자	42	40	50	52	49	49	53	44	35	37	40	54	55	46	40	45	40	38	42	34
다문화	충청도 충주	여자	49	52	46	52	43	51	47	56	63	50	48	65	46	49	45	52	57	36	35	39
다문화	충청도 충주	여자	46	49	46	44	49	48	47	50	53	44	41	70	43	49	40	67	57	40	41	39
다문화	충청도 충주	여자	51	52	50	44	54	42	38	50	47	66	46	82	46	49	40	60	79	36	38	36
다문화	충청도 충주	여자	51	63	65	92	43	60	60	56	58	53	39	43	80	68	53	67	68	75	71	75
다문화	충청도 충주	여자	44	45	43	44	43	60	47	74	47	40	39	76	46	53	40	45	51	42	48	36
다문화	충청도 충주	여자	49	42	43	44	43	51	38	68	47	37	37	70	40	53	40	60	51	38	35	43
다문화	충청도 충주	남자	43	52	47	43	49	57	68	42	54	51	43	56	46	55	42	66	49	39	38	40
다문화	전라도 남원	남자	38	38	44	45	44	53	41	68	38	39	38	41	39	42	42	43	41	39	41	37
다문화	전라도 남원	여자	38	45	43	44	44	47	39	58	36	39	46	42	39	41	41	46	45	37	40	36
다문화	전라도 남원	남자	49	47	48	45	51	47	46	49	57	46	61	64	43	53	42	50	46	53	57	49
다문화	전라도 남원	여자	41	48	50	52	49	46	43	50	41	47	44	59	47	66	40	45	45	50	49	51
다문화	전라도 남원	여자	41	56	50	60	43	48	47	50	69	40	46	76	40	42	40	45	68	40	45	36
다문화	전라도 남원	여자	44	40	46	44	49	45	38	56	42	44	34	43	46	57	40	45	45	40	35	47
다문화	전라도 남원	여자	44	44	46	44	49	42	47	38	47	50	41	59	49	53	45	45	45	42	41	43
다문화	전라도 남원	남자	36	38	43	44	43	42	43	44	53	44	37	37	43	45	40	45	40	36	38	36
다문화	전라도 남원	여자	46	38	54	52	54	39	43	38	42	44	48	59	46	53	45	45	45	44	45	43
다문화	전라도 남원	여자	42	40	43	44	43	45	47	44	42	40	41	59	49	57	40	45	57	36	35	39
다문화	전라도 남원	여자	37	44	43	44	43	48	47	50	42	40	34	54	40	42	40	45	40	44	45	43
다문화	전라도 남원	여자	32	34	42	44	42	42	41	46	45	43	45	49	42	40	40	44	38	36	34	40
다문화	경기도 일죽	남자	37	36	43	44	44	37	34	45	36	39	36	77	39	41	41	46	39	37	40	36
다문화	경기도 일죽	남자	46	47	44	45	44	53	56	49	57	43	38	52	39	45	42	62	51	45	49	41
다문화	경기도 일죽	남자	55	51	58	52	61	52	53	50	52	54	63	54	62	70	54	45	50	54	57	51
다문화	경기도 일죽	여자	56	56	68	84	54	75	74	68	74	66	55	104	55	68	58	45	68	58	55	61
다문화	경기도 일죽	여자	44	47	54	52	54	45	52	38	42	53	53	43	43	45	45	45	41	47	48	47
다문화	충청도 태안	남자	42	40	44	45	44	44	46	43	44	39	38	52	39	45	42	43	46	45	45	45
다문화	충청도 태안	남자	46	51	42	44	43	35	38	36	35	40	35	41	38	44	44	41	56	49	46	51
다문화	충청도 태안	남자	35	35	42	44	43	38	38	42	47	37	51	35	38	40	39	41	39	38	39	39
다문화	충청도 태안	여자	46	47	68	52	76	42	47	38	47	59	41	54	46	45	40	45	51	42	45	39
다문화	충청도 태안	여자	39	40	63	49	70	60	75	35	64	47	37	59	41	43	39	60	37	43	41	47
빈도	T=60~69		0	1	4	1	1	3	2	3	3	2	2	2	1	3	0	7	3	0	0	1
빈도	70 ≤ T		0	0	0	2	2	1	2	1	1	0	0	7	1	1	0	0	1	1	1	1

- 다문화 농업인의 경우, 정서문제 영역에서, 주의/위험수준에서의 사례수가 0~4의 빈도로, 문제수준에서도 0~2사례로 거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현실적응 영역에서는 조증(F=7)의 사례수가 70≤T(문제수준)에서 나타났다. 기타 영역에서, 중독(F=7)의 사례수가 주위/위험수준에 있음

〈표 11〉 독거노인 농업인의 사례별 간이정신진단검사 T점수표

하위 집단	지역	성별	정서문제영역										현실적응문제영역			기타영역						
			우울	불안	공포	공황	임소공포	강박	강박증	강박성격	PTSD	분노공격	신체화	조증	편집증	정신증	자살	중독	수면	스트레스	대인민감	낮은조절
고령	충청도 충주	여자	53	61	66	52	75	59	70	44	47	54	73	37	44	49	65	46	60	53	53	53
고령	충청도 충주	여자	53	57	66	73	56	72	65	74	54	50	57	37	55	45	65	46	70	58	57	58
고령	충청도 충주	여자	49	45	47	44	50	59	54	62	47	47	62	48	40	49	45	46	54	49	53	44
고령	충청도 충주	남자	59	55	79	72	82	49	50	49	51	48	67	48	48	58	57	44	52	53	51	56
고령	충청도 충주	여자	73	69	43	44	43	76	75	68	33	47	52	53	59	57	65	46	86	42	44	40
고령	충청도 충주	여자	39	38	43	44	43	59	44	74	33	40	36	37	48	41	40	46	39	37	36	40
고령	충청도 충주	여자	57	53	69	52	82	53	49	56	54	44	57	48	59	53	55	110	44	53	49	58
고령	충청도 충주	여자	59	45	62	44	75	40	44	38	47	50	43	37	51	41	55	46	60	46	49	44
고령	충청도 충주	여자	47	47	47	44	50	49	49	50	61	47	43	48	44	49	50	46	54	42	44	40
고령	충청도 충주	여자	43	57	58	52	62	53	49	56	54	44	52	48	51	41	45	46	60	42	44	40
고령	경기도 일죽	여자	37	40	43	44	43	40	33	50	40	40	40	42	40	41	40	46	39	37	40	36
고령	경기도 일죽	여자	57	63	43	44	43	66	49	80	75	54	45	48	51	49	55	46	86	67	66	67
고령	경기도 일죽	여자	45	49	43	44	43	53	44	62	47	47	64	53	55	45	40	46	49	46	44	49
고령	경기도 일죽	여자	53	53	54	44	62	56	44	68	61	40	66	48	48	41	50	46	54	49	53	44
고령	경기도 일죽	여자	67	75	62	52	69	49	49	50	75	44	54	53	48	53	65	46	80	58	66	49
고령	경기도 일죽	여자	45	49	43	44	43	40	33	50	33	44	40	53	44	49	50	46	54	39	44	36
고령	경기도 일죽	여자	53	53	43	44	43	40	33	50	33	50	47	53	51	41	40	46	86	42	49	36
고령	경기도 일죽	여자	89	77	62	66	56	79	70	80	75	47	52	53	51	69	94	46	86	67	62	71
고령	경기도 일죽	여자	67	67	58	44	69	63	70	50	61	50	62	58	55	57	70	46	54	53	53	53
고령	경기도 일죽	남자	67	59	45	46	45	56	50	60	44	44	39	59	56	46	77	44	52	53	59	47
고령	경기도 일죽	여자	51	55	51	59	43	46	44	50	33	47	62	53	48	45	40	46	70	42	44	40
고령	경기도 일죽	여자	43	45	47	44	50	43	44	44	47	44	43	53	44	49	45	46	65	49	53	44
고령	경기도 일죽	여자	53	55	58	44	69	56	54	56	75	64	50	53	48	45	55	46	80	56	53	58
고령	경기도 일죽	여자	61	47	43	44	43	72	60	80	40	44	45	53	44	49	40	46	49	63	49	76
고령	경기도 일죽	여자	61	55	43	44	43	53	49	56	47	44	66	53	59	53	50	46	54	60	66	53
고령	경기도 일죽	여자	47	47	43	44	43	43	54	32	54	40	36	64	40	49	55	46	54	39	36	44
고령	경기도 일죽	여자	59	55	62	73	50	49	49	50	54	47	54	53	59	61	50	46	49	53	53	53
고령	충청도 태안	남자	53	47	55	63	45	46	35	60	44	44	56	42	40	42	41	44	58	44	47	43
고령	충청도 태안	남자	51	59	58	52	43	39	50	40	54	50	53	55	49	45	46	54	56	40	47	71
고령	충청도 태안	남자	61	47	50	54	45	46	35	60	44	55	61	42	40	42	52	44	52	47	47	47
빈도	T=60~69		6	4	7	2	6	2	2	7	3	1	8	1	0	2	4	0	4	4	4	1
빈도	70 ≤ T		1	2	1	3	4	4	4	5	3	0	1	0	0	3	1	8	0	0	3	3

- 독거노인 농업인의 경우, 정서문제 영역에서, 신체화(F=8), 신체화(F=8), 공포(F=7), 강박성격(F=7), 우울(F=6), 임소공포(F=6)등의 순서로 주의/위험수준에서 나타났으며, 현실적응 영

역에서는 주의/위험수준에서 0~2의 빈도로, 문제수준에서는 거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타 영역에서, 자살, 수면문제, 스트레스 취약성, 대인민감성(F=4)의 사례수가 동일하게 주의/위험수준에서 나타났고, 문제수준에서는 수면문제(F=8)가 가장 두드러진 문제 영역으로, 자살과 낮은조절력(F=3)도 동일한 빈도를 보이고 있다.

(4) 스트레스 검사 결과

- 농업인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20문항의 설문을 통해 나온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표 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농업인의 전체 평균을 보면 1.53이며, 농업인 유형별 스트레스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귀농인(1.43), 다문화(1.33), 독거노인(1.82)로 나타남. 독거노인이 귀농인과 다문화 농업인의 스트레스 보다 높게 나타났음

<표 12> 유형별 스트레스에 기술통계

	N	평균	표준화 편차	표준화 오류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	상한		
귀농인	30	1.4276	0.46629	0.08659	1.2502	1.6050	1.00	2.95
다문화	30	1.3383	0.41162	0.07515	1.1846	1.4920	1.00	2.50
독거노인	30	1.8259	0.64360	0.11951	1.5811	2.0707	1.00	3.35
전체	90	1.5284	0.55236	0.05888	1.4114	1.6454	1.00	3.35

- 농업인들의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평균적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ANOVA분석을 실시하고 집단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사후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13>과 <표14>와 같음

<표 13> ANOVA 결과 유의확률

스트레스평균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3.945	2	1.972	7.418	0.001
집단-내	22.599	85	0.266		
전체	26.544	87			

<표 14> 사후검증의 결과

Scheffea,b 구분	N	유의수준 = 0.05에 대한 부분집합	
		1	2
다문화	30	1.3383	
귀농인	29	1.4276	
독거노인	29		1.8259
유의확률		0.803	1.000

- <표 13>의 분석결과를 보면 스트레스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사후분석을 통해 자세히 살펴본 결과 다음 <표 14>와 같이 독거노인의 스트레스가 높음을 알 수 있음

(5) 농업인의 삶의 질 결과

가. 정서적 만족

- 농업인의 삶의 질 중에서 정서적 만족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 10문항의 설문을 통해 나온 결과는 다음의 <표 15>과 같음
- 삶의 질의 ' 정서적 만족 '의 평균을 보면 3.47정도로, 정서적으로 보통 수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음
- 유형별로 보면 귀농인(3.58), 다문화(3.86), 독거노인(2.96)로 나타남. 독거노인이 귀농인과 다문화 농업인의 보다 정서적 만족부분에서도 낮게 나왔음

<표 15> 유형별 정서적 만족에 기술통계

	N	평균	표준화 편차	표준화 오류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	상한		
귀농인	29	3.5862	0.79540	0.14770	3.2837	3.8888	1.50	5.00
다문화	30	3.8600	0.87989	0.16065	3.5314	4.1886	1.80	5.00
독거노인	29	2.9586	1.00730	0.18705	2.5755	3.3418	1.00	4.80
전체	88	3.4727	0.96558	0.10293	3.2681	3.6773	1.00	5.00

- 다음의 <표 16>은 농업인들의 유형에 따른 정서적 만족 평균적 유형별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ANOVA분석을 실시한 결과임. 다음 분석결과는 정서적 만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사후분석을 통해 본 결과 <표 16>과 같이 독거노인의 정서적 만족이 낮음을 알 수 있었음

<표 16> ANOVA 및 사후검증의 결과

Scheffea,b 구분	N	유의수준 = 0.05에 대한 부분집합	
		1	2
독거노인	29	2.9586	
귀농인	29		3.5862
다문화	30		3.8600
유의확률		1.000	0.509

나. 자아실현

- 농업인의 삶의 질 중에서 ' 자아실현 '을 측정하기 위해 6문항의 설문을 통해 나온 결과는 다음의 <표 17>와 같음
- 전체 평균을 보면 3.62정도이며,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다고 볼 수 있음
- 유형별로 보면 귀농인(4.16), 다문화(3.90), 독거노인(2.79)로 나타남
- 귀농인의 자아실현은 4.16점으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으며, 독거노인이 귀농인과 다문화 농업인의 보다 자아실현 부분에서도 낮은 결과가 나타남

<표 17> 유형별 자아실현에 기술통계

	N	평균	표준화 편차	표준화 오류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	상한		
귀농인	29	4.1609	0.54642	0.10147	3.9531	4.3688	2.83	5.00
다문화	30	3.9000	0.90930	0.16601	3.5605	4.2395	2.00	5.00
독거노인	29	2.7989	1.06101	0.19703	2.3953	3.2024	1.00	4.83
전체	88	3.6231	1.04083	0.11095	3.4026	3.8436	1.00	5.00

- 다음의 <표 18>은 농업인들의 유형에 따른 자아실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ANOVA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의 분석결과와 같이 농업인의 유형별 '자아실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사후분석을 통해 본 결과 같이 독거노인의 정서적 만족이 낮음을 알 수 있었음

<표 18> ANOVA 및 사후검증의 결과

Scheffea,b 구분	N	유의수준 = 0.05에 대한 부분집합	
		1	2
독거노인	29	2.7989	
다문화	30		3.9000
귀농인	29		4.1609
유의확률		1.000	0.517

다. 자기존중

- 농업인의 삶의 질 중에서 자기존중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 7문항의 설문을 통해 나온 결과는 다음의 <표 19>과 같음. 전체 평균을 보면 3.75정도이며, 자기존중은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음. 유형별로 보면 귀농인(4.11), 다문화(4.02), 독거노인(3.09) 순으로 나타남
- 귀농인과 다문화는 자기존중에 높음을 알 수 있으며, 독거노인은 역시 자기존중 부분에서도 귀농인과 다문화 농업인의 보다 낮게 나타남

<표 19> 유형별 자기존중 기술통계

	N	평균	표준화 편차	표준화 오류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	상한		
귀농인	29	4.1133	0.59072	0.10969	3.8886	4.3380	3.14	5.00
다문화	30	4.0190	0.81396	0.14861	3.7151	4.3230	1.57	5.00
독거노인	29	3.0985	0.88567	0.16446	2.7616	3.4354	1.43	5.00
전체	88	3.7468	0.89220	0.09511	3.5577	3.9358	1.43	5.00

〈표 20〉 ANOVA 및 사후검증의 결과

Scheffea,b 구분	N	유의수준 = 0.05에 대한 부분집합	
		1	2
독거노인	29	2.7989	
다문화	30		3.9000
귀농인	29		4.1609
유의확률		1.000	0.517

- 농업인들의 유형에 따른 자기존중 평균적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ANOVA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분석을 통해 본 결과 〈표 20〉과 같이 독거노인의 정서적 만족이 낮음을 알 수 있었음

(6)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상관관계

-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의 〈표 21〉와 같음

〈표 21〉 스트레스와 삶의 질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	표준화 편차	N
스트레스 평균	1.5284	0.55236	88
삶의 질 평균	3.5954	0.85899	88

- 다음의 〈표 22〉은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임

〈표 22〉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상관관계

		스트레스평균	삶의질평균
스트레스 평균	Pearson 상관	1	-.443**
	유의확률 (양측)		0.000
	N	88	88
삶의 질 평균	Pearson 상관	-.443**	1
	유의확률 (양측)	0.000	
	N	88	88

**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표 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스트레스와 삶의 질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즉 스트레스와 삶의 질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음

4) 주관성연구 결과

(1) 독거노인 농업인의 심리적 특성 결과

■ 연구의 목적

- 독거노인 농업인의 삶에 대한 심리적 특성을 이들의 주관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들의 심리적 특성이 어떻게 유형화 되는지 살펴보는 것

■ 연구방법

- 독거노인 농업인이 느끼는 심리적 특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Q방법론을 실시함
- 진술문(Q 모집단)을 생성하기 위한 문헌연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유목화 과정을 통해 최종 33개의 Q-sample을 작성함
- 30명(P-sample)을 선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Q-sorting을 통해 데이터 수집함
- 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심리적 특성을 유형화 함
- IRB 승인을 받았으며 독거노인 농업인(P-sample)을 대상으로 연구를 위한 동의를 획득함

Q 방법론을 통한 자료수집 과정	1단계	Q 모집단 심층면담(7명) 및 문헌고찰 -> 193개 진술문 추출
	2단계	Q 샘플 최종 33개 진술문 선정
	3단계	P 샘플 선정 대상자 30명(독거노인 농업인)
	4단계	Q-sorting 진행 대상자가(30명) - Q카드 및 배열판 제작: 대상자가 가능한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게 하려고 Q 진술문 카드로 제작 - 33개의 Q 진술문을 9점 척도(-4~+4)의 정규분포 형태로 강제 분류
유형의 확인	자료분석	Q sorting 자료를 QUANL 프로그램으로 분석
유형의 해석	결과분석	유형별 특성 분석과 인식 구조의 확인

[그림 4] Q방법론의 절차: 독거노인 농업인

■ 연구참여자

<표 23> P-sample

Type	P	성 별	나 이	최종 학력	종교	결혼 관계	거주 지역	농사 유형	농사기간	독거 기간	건강 상태	도 움
1	1	여자	83	초등학교	기독교	사별	충청도	밭농사	10년미만	10년 미만	건강한편	자녀
	8	여자	79	초등학교	기독교	사별	충청도	밭농사 논농사	40년이상	10년 미만	보통	없음
	9	여자	70	초등학교	기독교	사별	충청도	밭농사 논농사	40년미만	20년 미만	건강한편	없음
	16	여자	84	초등학교	불교	사별	경기도	밭농사	40년이상	10년 미만	아주 안 좋음	자녀
	20	여자	81	무학	기타	사별	경기도	밭농사	40년이상	40년 미만	보통	없음
2	3	여자	85	초등학교	불교	사별	충청도	밭농사 논농사	40년이상	20년 미만	아주 안 좋음	자녀
	4	여자	82	초등학교	기타	사별	충청도	밭농사 논농사	40년이상	20년 미만	안 좋음	정부 기관
	7	여자	81	무학	불교	사별	충청도	밭농사 축산	40년이상	30년 미만	아주 안 좋음	자녀
	10	여자	83	중학교	기독교	사별	충청도	밭농사 과수원	10년미만	20년 미만	보통	자녀
	11	여자	82	무학	기타	사별	경기도	밭농사 기타	40년이상	20년 미만	안 좋음	없음
	12	여자	76	초등학교	기타	사별	경기도	밭농사	5년미만	30년 미만	안 좋음	없음
	13	여자	88	무학	불교	사별	경기도	밭농사 논농사	40년이상	30년 미만	아주 안 좋음	없음
	15	여자	77	초등학교	불교	사별	경기도	밭농사 논농사	40년이상	20년 미만	안 좋음	없음
	18	여자	81	초등학교	불교	사별	경기도	밭농사	40년이상	40년 이상	보통	자녀
	19	여자	90	초등학교	기독교	사별	경기도	기타	40년이상	10년 미만	보통	자녀
	21	여자	83	초등학교	불교	사별	경기도	밭농사	40년이상	30년 미만	보통	없음
	24	여자	80	중학교	불교	이혼	경기도	과수원	20년미만	20년 미만	안 좋음	자녀
3	5	남자	83	초등학교	기타	사별	충청도	기타	30년미만	10년 미만	안 좋음	자녀
	6	여자	86	초등학교	기타	사별	충청도	기타	5년미만	20년 미만	안 좋음	자녀
	22	남자	80	무학	기타	사별	경기도	밭농사 논농사	40년이상	30년 미만	건강한편	자녀
4	2	여자	68	초등학교	기타	이혼	충청도	기타	40년이상	40년 이상	아주 건강	자녀
	14	여자	88	무학	기독교	사별	경기도	밭농사	40년미만	40년 미만	건강한편	없음
	17	여자	75	초등학교	불교	사별	경기도	축산	20년미만	1년 미만	안 좋음	지역 사회
	23	여자	67	고등학교	불교	사별	경기도	논농사	10년미만	10년 미만	보통	없음
	25	여자	81	초등학교	기독교	사별	경기도	논농사	10년미만	40년	보통	없음

Type	P	성별	나이	최종학력	종교	결혼관계	거주지역	농사유형	농사기간	독거기간	건강상태	도움
제외	26	여자	77	초등학교	기타	사별	경기도	밭농사	40년이상	10년미만	안 좋음	자녀
	27	여자	77	초등학교	기타	사별	경기도	밭농사 논농사	40년이상	30년미만	아주 안 좋음	자녀
	28	여자	76	무학	기타	사별	충청도	논농사	40년이상	30년미만	안 좋음	없음
	29	남자	82	초등학교	기타	사별	충청도	밭농사 논농사	40년이상	5년미만	보통	없음
	30	남자	75	무학	기타	이혼	충청도	밭농사 논농사	40년이상	30년미만	안 좋음	없음

가. 제1유형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 5명의 독거노인 농업인이 포함되었으며 여성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연령 79.4세로 4개의 집단에서 두 번째로 나이가 적음
- 1명(20%)은 ‘무학’, 4명(80%)은 ‘초등학교’ 학력이며, 종교는 ‘기독교’ 3명(60%), ‘불교’ 1명(20%), ‘기타’ 1명(20%)임
- 5명 모두 사별로 인해 혼자 살게 되었으며, 혼자 산 기간은 ‘10년 미만’ 이 3명, ‘20년 미만’ 이 1명, ‘40년 미만’ 이 1명임
- 농사를 지은 기간은 ‘10년 미만’ 이 1명, ‘40년 미만’ 이 1명, ‘40년 이상’ 이 3명임
- 현재 건강상태는 ‘건강한편’ 이 2명, ‘보통’ 이 1명, ‘아주 안 좋음’ 이 1명이이고, 도움과 관련해서는 ‘없다’ 가 3명(60%), ‘자녀’ 가 2명(40%)임

나. 제2유형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 12명이 포함되었으며, 여성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으로 평균 연령이 82.33으로 4집단 중 2번째로 높음
- 3명(25%)이 ‘무학’, 7명(58.3%)이 ‘초등학교’, 2명(16.7%)은 ‘중학교’ 학력이며, 종교는 ‘기독교’ 2명(16.7%), ‘불교’ 7명(58.3%), ‘기타’ 3명(25%)임
- 사별(11명, 91.7%)과 이혼(1명, 8.3%)으로 혼자 살게 되었으며, 혼자 산 기간은 ‘10년 미만’ 이 1명(8.3%), ‘20년 미만’ 이 6명(50%), ‘30년 미만’ 이 4명(33.3%), ‘40년 미만’ 이 1명(8.3%)임
- 농사를 지은 기간은 ‘5년 미만’ 이 1명(8.3%), ‘10년 미만’ 이 1명(8.3%), ‘20년 미만’ 이 1명(8.3%), ‘40년 이상’ 이 9명(75%)임
- 현재 건강상태는 ‘보통’ 이 4명(33.3%), ‘안 좋음’ 5명(41.7%), ‘아주 안 좋음’ 이 3명(25%)이며, 도움과 관련해서는 ‘없다’ 가 5명(41.7%), ‘자녀’ 가 6명(50%), 정부기관이 1명(8.3%)임

다. 제3유형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 3명이 포함되었으며, 남성이 2명(66.7%), 여성이 1명(33.3%)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으로 평균 연령이 83세로 가장 높음

- 1명(33.3%)이 ‘무학’ , 2명(66.7%)이 ‘초등학교’ 학력이며, 종교는 ‘기타’ 가 3명(100%)임
- 사별(100%)로 혼자 살게 되었으며, 혼자 산 기간은 ‘10년 미만’ 이 1명(33.3%), ‘20년 미만’ 이 1명(33.3%), ‘30년 미만’ 이 1명(33.3%)임
- 농사를 지은 기간은 ‘5년 미만’ 이 1명(33.3%), ‘30년 미만’ 이 1명(33.3%), ‘40년 이상’ 이 1명(33.3%)임
- 현재 건강상태는 ‘건강한편’ 이 1명(33.3%), ‘안 좋음’ 2명(66.7%)이었다. 도움과 관련해서는 ‘자녀’ 가 100%임

라. 제4유형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 5명이 포함되었으며, 여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집단으로 평균 연령이 75.8세로 가장 젊은 집단임
- 1명(20%)이 ‘무학’ , 3명(60%)이 ‘초등학교’ , 1명(20%)이 ‘고등학교’ 학력이며, ‘기독교’ 2명(40%), ‘불교’ 2명(40%), ‘기타’ 1명(20%)임
- 사별(4명, 80%)과 이혼(1명, 20%)으로 혼자 살게 되었으며, 혼자 산 기간은 ‘1년 미만’ 이 1명(20%), ‘10년 미만’ 이 1명(20%), ‘40년 미만’ 이 1명(20%), ‘40년 이상’ 이 2명(40%)임
- 농사를 지은 기간은 ‘10년 미만’ 이 2명(40%), ‘20년 미만’ 이 1명(20%), ‘40년 미만’ 이 1명(20%), ‘40년 이상’ 이 1명(20%)임
- 현재 건강상태는 ‘아주 건강’ 1명(20%), ‘건강한편’ 이 1명(20%), 보통 2명(40%), ‘안 좋음’ 1명(20%)이며, 도움과 관련해서는 ‘없음’ 이 3명(60%), ‘자녀’ 가 1명(20%), 지역사회가 1명(20%)임

■ 연구결과

- 요인(FACTOR)을 분석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독거노인 농업인의 심리적 특성은 4개의 요인이 도출
- 각 유형의 아이젠값은 1요인이 5.2856, 2요인이 3.3980, 3요인 2.0356, 4요인이 1.6975 이며 누적변량은 .4967로 나타남

<표 24> 4가지 유형 분류에서의 아이젠값과 설명변량

내용 \ 요인	I	II	III	IV
EIGENVALUES	5.2856	3.3980	2.0356	1.6975
TOTAL VARIANCE	.2114	.1359	.0814	.0679
CUMULATIVE	.2114	.3473	.4288	.4967
SOLUTION VARIANCE	.4257	.2737	.1639	.1367
CUMULATIVE	.4257	.6993	.8633	1.0000

- 각 유형 간의 유사성을 알아보기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1유형과 2유형은 0.131, 1유형과 3유형은 .090, 1유형과 4유형은 .470, 2유형과 3유형은 .172, 2유형과 4유형은 .262, 3유형과 4유형은 .039로 나타났다. 1유형과 4유형이 약간 상관관계가 있고 다른 유형간 상관관계는 낮은 편임

<표 25> 각 유형 간 상관관계

유형	1	2	3	4
1	1.000			
2	.131	1.000		
3	.090	.172	1.000	
4	.470	.262	.039	1.000

- 각 유형별 인자가중치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26> 4가지 유형별사람과 인자가중치

TYPE1 (N=5)		TYPE2 (N= 12)		TYPE3 (N=3)		TYPE4 (N=5)	
사람	적재치	사람	적재치	사람	적재치	사람	적재치
		p=3	.8813				
p=1	1.4469	p=4	2.3504			p=2	1.0834
p=8	1.6730	p=7	.7699	p=5	2.1036	p=14	1.4141
p=9	.9847	p=10	1.4958	p=6	.8572	p=17	.7430
p=16	1.5749	p=11	.8219	p=22	1.1777	p=23	1.4631
p=20	1.3076	p=12	.4767			p=25	.5695
		p=13	.7552				

	p=15	.8263				
	p=18	1.0638				
	p=19	1.1766				
	p=21	.1056				
	p=24	.3672				

■ 유형 1 : 삶의 전반에서 만족하는 “균형잡힌 삶 추구형”

- 유형1에 속하는 5명의 독거노인 농업인은 다음 진술문에 강한 동의를 보임
- ‘나의 가족(아들, 손자 등)은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 준다고 생각한다(Q17, Z=2.00)’, ‘텔레비전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나를 재미있게 해주니까 텔레비전은 나의 좋은 친구이고 이웃이다(Q23, Z=1.84)’, ‘가7족(자녀 등)이 나의 건강을 돌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Q2, Z=1.62)’, ‘질병(고혈압, 당뇨, 관절염등)이 있어 아프고 힘들지만 건강하려고 애쓰고 있다(Q1, Z=1.31)’, ‘농사일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해 본적이 없고 농사일을 하면서 내 인생이 끝날거라고 생각한다(Q15, Z=1.21)’, ‘나는 여전히 밥맛이 있고 혼자 있지만 식사를 잘 챙겨 먹는다(Q3, Z=1.19)’, ‘가족(아들, 손자 등)이 자주 찾아오고 일(집안일, 농사일 등)도 도와주고 해서 기쁘다(Q16, Z=1.09)’. ‘애들 오면 농사지은거 싸 주고 손주들 뭐라도 사주고 그럴 수 있어서 마음이 기쁘고 좋다(Q13, Z=1.02)’
- 유형1에 속하는 5명의 독거노인 농업인은 다음 진술문은 강하게 부정함
- ‘혼자라는 것이 외롭고 쓸쓸한 감정을 갖게 한다(Q25, Z=-1.63)’, ‘비슷한 나이의 다른 사람보다 건강이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Q4, Z=-1.46)’, ‘요새같이 좋은 세상 죽으면 억울할 것 같다(Q24, Z=-1.46)’, ‘정부기관에서 매일 전화해서 안부도 물어주고 하니까 자식보다 낫다는 생각이 든다(Q20, Z=-1.31)’ 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형1이 다른 유형과 차이를 보인 진술문은 ‘가족(자녀 등)이 나의 건강을 돌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Z값 차이=1.822)’ 와 ‘혼자라는 것이 외롭고 쓸쓸한 감정을 갖게 한다(Z값 차이=-2.450)’ 임
- 유형1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인자 가중치가 높은 1번, 8번, 16번, 20번 연구대상자를 중심으로 Q-sorting 당시 면담에서 독거노인 농업인이 가장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진술한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음
- ‘집에만 있으면 더 병만 생기고, 아프다고 가만히 있으면 병만 더 난다’, ‘애들은 못하게 하지만 운동 삼아서 내가 함, 발이 있어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여러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음’, ‘밥을 잘 해서 먹어야지 건강해지니까 밥해서 먹는 것이 힘들지 않다’, ‘다른 생각할 나이가 지났고 힘이 없을 때까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자식, 손주들 뭐라도 농사지은 거 싸주는 낙으로 농사를 진다. 그게 나의 낙이고 기쁨이다’, ‘초저녁부터 보면 저녁이 되고 자고 일어나서부터도 하니까. TV라도 보니 기쁘지 아니면 재미없고 무료하기 때문에 집에 남편도 4년전에 돌아가셔서 더 많이 봄’, ‘혼자 있어서 아들이 “엄마가 오래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가족이 나를 생각해주고 아끼는 게 느껴진다. 막내며느리가 꼭 10만원씩 붙여준다. 막내며느리가 최고다’, ‘가끔 와서 음식도 데워주고 옆에 사는 이웃이 많이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 킁킁할까봐 미리 불도 켜준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유형1에 속한 독거노인 농업인들은 혼자이지만 쓸쓸한 감정

은 없으며 비슷한 나이의 다른 사람에 비해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혼자서도 식사를 잘 챙겨먹는다. 그리고 가족관계가 좋아 가족들이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 준다고 생각하고 가족으로 인해 기쁨을 느끼며 농사일에도 적극적인 유형이다. 사회적관계, 건강관리, 농사일, 경제적 만족, 삶의 태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두루 만족하는 유형으로 삶의 전반에서 균형 잡혀 있는 유형이므로 ‘삶의 전반에서 만족하는 균형잡힌 삶 추구형’으로 명명함

〈표 27〉 유형1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 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17	나의 가족(아들, 손자 등)은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 준다고 생각한다	2.00
23	텔레비전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나를 재미있게 해주니까 텔레비전은 나의 좋은 친구이고 이웃이다	1.84
2	가족(자녀 등)이 나의 건강을 돌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1.62
1	질병(고혈압, 당뇨, 관절염등)이 있어 아프고 힘들지만 건강하려고 애쓰고 있다.	1.31
15	농사일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해 본적이 없고 농사일을 하면서 내 인생이 끝날거라고 생각한다	1.21
3	나는 여전히 밥맛이 있고 혼자 있지만 식사를 잘 챙겨 먹는다	1.19
16	가족(아들, 손자 등)이 자주 찾아오고 일(집안일, 농사일 등)도 도와주고 해서 기쁘다	1.09
13	애들오면 농사지은거 싸 주고 손주들 뭐라도 사주고 그럴 수 있어서 마음이 기쁘고 좋다	1.02
20	정부기관에서 매일 전화해서 안부도 물어주고 하나까 지식보다 낫다는 생각이 든다	-1.31
24	요새같이 좋은 세상 죽으면 억울할 것 같다	-1.46
4	비슷한 나이의 다른 사람보다 건강이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	-1.46
25	혼자라는 것이 외롭고 쓸쓸한 감정을 갖게 한다	-1.63

■ 유형 2 : 남편이 없어 쓸쓸하지만 “독립적인 삶과 변화 추구형”

- 유형2에 속하는 12명의 독거노인 농업인은 다음 진술문에 강한 동의를 보임
- ‘자식들이 도와주고 즐겁게 해줘도 남편(혹은 부인)만 못하다(Q19, Z=1.81)’, ‘혼자라는 것이 외롭고 쓸쓸한 감정을 갖게 한다(Q25, Z=1.48)’, ‘가족(아들, 손자 등)은 잠깐만 왔다가 가도 반갑고 고맙다(Q18, Z=1.21)’,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불편해서 좀 고쳐서 살고 싶다(난방, 화장실, 쥐 출몰 등)(Q30, Z=1.18)’,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Q26, Z=1.04)’, ‘내가 힘들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면 안 되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Q28, Z=1.00)’
- 유형2에 속하는 12명의 독거노인 농업인은 다음 진술문은 강하게 부정함
 ‘농기구도 잘 다루고 농사일에는 자신이 있다(Q14, Z=-2.24).’, ‘돈을 많이 쓰려고 하면 모자라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만큼은 갖고 있어서 만족한다(Q8, Z=-1.83).’, ‘노후준비와 자식의 도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Q7, Z=-1.73)’, ‘나의 지난 평생은 성공한 편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이루었다고 생각한다(Q27, Z=-1.10)’, ‘가족(자녀 등)이 나의 건강을 돌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Q2, Z=-1.05)’
- 유형2가 다른 유형과 차이를 보인 진술문은 ‘자식들이 도와주고 즐겁게 해줘도 남편(혹은 부인)만 못하다(Z값 차이=2.506)’ 와 ‘노후준비와 자식의 도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Z값 차이=-2.002)’ 임

- 유형2의 요인가중치가 가장 높은 P4는 “혼자사니 경제적으로 어렵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딸은 서울 사는데 1년에 1번 내려온다. 너무 외롭고 쓸쓸하다. 슬하에 딸이 하나라서 외롭다, 집을 새로 지어서 다 고쳐서 살고 싶다, ” 라고 기술함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유형2의 독거노인 농업인은 남편도 없고 자식도 떨어져 살아서 쓸쓸하고, 남편이 농사일을 다했는데 지금은 없고 자신은 힘이 없으니 농사일에 자신이 없는 유형이다. 다른 집단에 비해 농사일을 그만하고 집에서 편히 쉬거나 취미생활을 하고 싶어 하며,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좀 고쳐서 살고 싶어 하는 유형으로 현재의 삶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지만 농사지으면서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힘들어도 다른 사람 도움을 바라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독립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유형이므로 ‘남편이 없어 쓸쓸하지만 독립적인 삶과 변화 추구형’으로 명명함

〈표 28〉 유형2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 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19	자식들이 도와주고 즐겁게 해줘도 남편(혹은 부인)만 못하다	1.81
25	혼자라는 것이 외롭고 쓸쓸한 감정을 갖게 한다	1.48
18	가족(아들, 손자 등)은 잠깐만 왔다가 가도 반갑고 고맙다	1.21
30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불편해서 좀 고쳐서 살고 싶다(난방, 화장실, 취 출물 등)	1.18
26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	1.04
28	내가 힘들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면 안되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0
2	가족(자녀 등)이 나의 건강을 돌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1.05
27	나의 지난 평생은 성공한 편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1.10
7	노후준비와 자식의 도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1.73
8	돈을 많이 쓰려고 하면 모자라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만큼은 갖고 있어서 만족한다	-1.83
14	농기구도 잘 다루고 농사일에는 자신이 있다	-2.24

■ 유형 3 : 쓸쓸함과 건강상 어려움으로 “관계와 돌봄 필요형”

- 유형3에 속하는 3명의 독거노인 농업인은 다음 진술문에 강한 동의를 보임
- ‘가족(아들, 손자 등)은 잠깐만 왔다가 가도 반갑고 고맙다(Q18, Z=1.72)’, ‘혼자라는 것이 외롭고 쓸쓸한 감정을 갖게 한다(Q25, Z=1.59)’, ‘가족(자녀 등)이 나의 건강을 돌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Q2, Z=1.54)’, ‘시력, 청력, 치아 등 상태가 나빠져서 불편하고 몸이 아프니 육체뿐 아니라 심리적 고통을 느낀다(Q5, Z=1.52)’, ‘가깝게 지내는 친구나 이웃이 있어서 심심하지 않다(Q22, Z=1.25)’, ‘노후준비와 자식의 도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Q7, Z=1.23)’, ‘정부기관에서 매일 전화해서 안부도 물어주고 하니 까 자식보다 낫다는 생각이 든다(Q20, Z=1.14)’, ‘질병(고혈압, 당뇨, 관절염등)이 있어 아프고 힘들지만 건강하려고 애쓰고 있다(Q1, Z=1.09)’
- 유형3에 속하는 3명의 독거노인 농업인은 다음 진술문은 강하게 부정함
- ‘농사일을 할 때 몸도 힘들고 고달프지만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하고 싶다(Q9, Z=-1.89).’, ‘농사일을 할 때 몸도 힘들고 고달프지만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하

- 고 싶다(Q10, Z=-1.72).’, ‘돈을 많이 쓰려고 하면 모자라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만큼은 갖고 있어서 만족한다(Q8, Z=-1.59)’, ‘농기구도 잘 다루고 농사일에는 자신이 있다(Q14, Z=-1.34)’, ‘나는 여전히 밥맛이 있고 혼자 있지만 식사를 잘 챙겨 먹는다(Q3, Z=-1.15)’, ‘자식들이 도와주고 즐겁게 해줘도 남편(혹은 부인)만 못하다(Q19, Z=-1.15)’
- 유형3이 다른 유형과 차이를 보인 진술문은 ‘시력, 청력, 치아 등 상태가 나빠져서 불편하고 몸이 아프니 육체뿐 아니라 심리적 고통을 느낀다(Z값 차이=2.106)’ 와 ‘내가 해야 하는 농사일(풀 뽑기 등)은 끝내야 마음이 편하다(Z값 차이=-2.319)’ 임
 - 유형3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인자 가중치가 높은 5번, 22번 연구대상자를 중심으로 Q-sorting 당시 면담에서 독거노인 농업인이 가장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진술한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음
 - ‘현재 몸(건강)이 좋지 않아서 농사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음’, ‘소화가 안되고 혼자 밥 해먹기 힘들다. 요양보호사가 주말에 오지 않아서 혼자 밥 먹는다. 요양보호사가 월-금까지 오는데 주말엔 혼자다’, ‘건강(무릎, 허리) 좋지 않으며, 전립선, 청력이 안 좋아서 심리적으로 힘들다’, ‘자식들이 돌봐줘야 좋다. 허리 다쳐서 일을 하기 너무 어렵다. 넘어져서 허리를 다쳐서 현재 요양보호사가 오고 있다’, ‘아들 두명, 딸이 있으며 딸이 가끔 와서 반찬을 해준다. 손주들이 함께 오면 기쁘고 반갑다. 하지만 자주 오지는 못해서 아쉽다’, ‘집에 친구 한명 오고 있는데 이야기하고 놀다간다. 마실 와서 집안얘기, 주변얘기, 그냥 자식 얘기 등등 한다. 이야기하니까 재밌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유형3의 독거노인 농업인은 혼자라는 것이 쓸쓸하고 몸이 아파서 심리적 고통을 느끼며 농사일이 힘들고 농사를 계속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경제적 어려움은 덜 느끼며 가족이 잠깐만 왔다가 가도 반갑고 고맙게 느끼는 유형이다. 다른 집단에 비해 혼자 식사를 잘 챙겨먹지 못하며 힘들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유형임. 즉, 쓸쓸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관계와 돌봄이 필요한 유형이므로 ‘쓸쓸함과 건강상 어려움으로 관계와 돌봄 필요형’ 으로 명명함

〈표 29〉 유형3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 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18	가족(아들, 손자 등)은 잠깐만 왔다가 가도 반갑고 고맙다	1.72
25	혼자라는 것이 외롭고 쓸쓸한 감정을 갖게 한다	1.59
2	가족(자녀 등)이 나의 건강을 돌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1.54
5	시력, 청력, 치아 등 상태가 나빠져서 불편하고 몸이 아프니 육체뿐 아니라 심리적 고통을 느낀다	1.52
22	가깝게 지내는 친구나 이웃이 있어서 심심하지 않다	1.25
7	노후준비와 자식의 도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1.23
20	정부기관에서 매일 전화해서 안부도 물어주고 하니까 자식보다 낫다는 생각이 든다	1.14
1	질병(고혈압, 당뇨, 관절염등)이 있어 아프고 힘들지만 건강하려고 애쓰고 있다.	1.09
19	자식들이 도와주고 즐겁게 해줘도 남편(혹은 부인)만 못하다	-1.15
3	나는 여전히 밥맛이 있고 혼자 있지만 식사를 잘 챙겨 먹는다	-1.15
14	농기구도 잘 다루고 농사일에는 자신이 있다	-1.34
8	돈을 많이 쓰려고 하면 모자라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만큼은 갖고 있어서 만족한다	-1.59
10	내가 해야 하는 농사일(풀 뽑기 등)은 끝내야 마음이 편하다	-1.72
9	농사일을 할 때 몸도 힘들고 고달프지만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하고 싶다	-1.89

■ 유형 4 : 농사일이 중요하고 가족이 소중한 “일과 가족 중심형”

- 유형4에 속하는 5명의 독거노인 농업인은 다음 진술문에 강한 동의를 보임
- ‘애들 오면 농사지은 거 싸 주고 손주들 뭐라도 사주고 그럴 수 있어서 마음이 기쁘고 좋다(Q13, Z=2.21)’, ‘나의 가족(아들, 손자 등)은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 준다고 생각한다(Q17, Z=1.71)’, ‘친구나 이웃이 도움을 많이 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Q21, Z=1.46)’, ‘농작물이 잘 자라는 것을 보면 만족스러운데 농사가 잘 안되면(날씨, 멧돼지 등) 속이 상한다(Q11, Z=1.25)’, ‘가족(아들, 손자 등)은 잠깐만 왔다가 가도 반갑고 고맙다(Q18, Z=1.21)’, ‘가족(아들, 손자 등)이 자주 찾아오고 일(집안일, 농사일 등)도 도와주고 해서 기쁘다(Q16, Z=1.07)’, ‘나는 여전히 밥맛이 있고 혼자 있지만 식사를 잘 챙겨 먹는다(Q3, Z=1.04)’
- 유형4에 속하는 5명의 독거노인 농업인은 다음 진술문은 강하게 부정함
- ‘바깥일(농사 일등) 보다 집안일(집청소, 밥하기 등) 할 때 짜증이 나는데 특히 밥을 해서 먹는 것이 힘들다(Q32, Z=-1.97).’, ‘농사일은 이제 그만하고 집에서 편히 쉬거나 다른 취미생활을 하고 싶다(Q29, Z=-1.50).’, ‘시력, 청력, 치아 등 상태가 나빠져서 불편하고 몸이 아프니 육체뿐 아니라 심리적 고통을 느낀다(Q5, Z=-1.33)’, ‘가족(자녀 등)이 나의 건강을 돌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Q2, Z=-1.10)’, ‘농사일을 할 때 몸도 힘들고 고달프지만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하고 싶다(Q9, Z=-1.10)’
- 유형4가 다른 유형과 차이를 보인 진술문은 ‘애들 오면 농사지은 거 싸 주고 손주들 뭐라도 사주고 그럴 수 있어서 마음이 기쁘고 좋다(Z값 차이=1.741)’ 와 ‘가족(자녀 등)이 나의 건강을 돌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Z값 차이=-1.806)’ 였다.
- 유형4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인자 가중치가 높은 2번, 14번, 23번 연구대상자를 중심으로 Q-sorting 당시 면담에서 독거노인 농업인이 가장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진술한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음
- ‘자식같이 키웠는데 상하고 죽으면 속상하다’, ‘나는 농사뿐이다. 다른 직업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자식이 나에게 마음을 써주는 것이 고맙다’, ‘즐겁게 살아가는 생각으로 짜증이 나도 참으려 한다’, ‘정부기관에서 안부를 물어봐줘도 그래도 자식이 더 좋다’, ‘혈압이 있지만 건강하려고 애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유형4의 독거노인 농업인은 애들 오면 농사지은 거 싸 주고 손주들 뭐라도 사주고 그럴 수 있어서 마음이 기쁘고 좋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농작물이 잘 자라는 것을 보면 만족스러운데 농사가 잘 안되면 속 상해하고, 가족이 나를 이해해줘서 고맙고 이웃이 있어서 고마우며 가족이 농사를 도와줘서 기쁘고 나쁜 농사를 통해 손주들 뭐라도 사줄 수 있어서 기쁘고 좋은 유형임.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농사를 중요시 하며 가족이 소중한 유형이므로 ‘농사일이 중요하고 가족이 소중한 일과 가족 중심형’으로 명명함

<표 30> 유형4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 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13	애들오면 농사지은거 싸 주고 손주들 뭐라도 사주고 그럴 수 있어서 마음이 기쁘고 좋다	2.21
17	나의 가족(아들, 손자 등)은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 준다고 생각한다	1.71
21	친구나 이웃이 도움을 많이 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1.46
11	농작물이 잘 자라는 것을 보면 만족스러운데 농사가 잘 안되면(날씨, 멧돼지 등) 속이 상한다	1.25
18	가족(아들, 손자 등)은 잠깐만 왔다가 가도 반갑고 고맙다	1.21
16	가족(아들, 손자 등)이 자주 찾아오고 일집안일, 농사일 등)도 도와주고 해서 기쁘다	1.07
3	나는 여전히 밥맛이 있고 혼자 있지만 식사를 잘 챙겨 먹는다	1.04
9	농사일을 할 때 몸도 힘들고 고달프지만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하고 싶다	-1.10
2	가족(자녀 등)이 나의 건강을 돌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1.10
5	시력, 청력, 치아 등 상태가 나빠져서 불편하고 몸이 아프니 육체뿐 아니라 심리적 고통을 느낀다	-1.33
29	농사일은 이제 그만하고 집에서 편히 쉬거나 다른 취미생활을 하고 싶다	-1.50
32	바깥일(농사 일등) 보다 집안일(집청소, 밥하기 등) 할 때 짜증이 나는데 특히 밥을 해서 먹는 것이 힘들다	-1.97

■ 일치항목

- 독거노인 농업인의 네 유형이 일치하는 진술문은 아래 표와 같음
- ‘가족(아들, 손자 등)은 잠깐만 왔다가 가도 반갑고 고맙다’ (Q18, Z=1.24)에 가장 긍정적인 동의를 했고, ‘나의 지난 평생은 성공한 편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Q27, Z= -.6)가 가장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냄

<표 31> 각 유형의 일치항목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18	가족(아들, 손자 등)은 잠깐만 왔다가 가도 반갑고 고맙다	1.24
1	질병(고혈압, 당뇨, 관절염등)이 있어 아프고 힘들지만 건강하려고 애쓰고 있다.	.87
22	가깝게 지내는 친구나 이웃이 있어서 심심하지 않다	.77
31	나는 외출, 물건구매 등을 하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힘들다	-.48
33	정부, 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잘 이용하고 싶는데 이동수단이 불편하여	-.57
27	어려움을 느낀다	-.60
	나의 지난 평생은 성공한 편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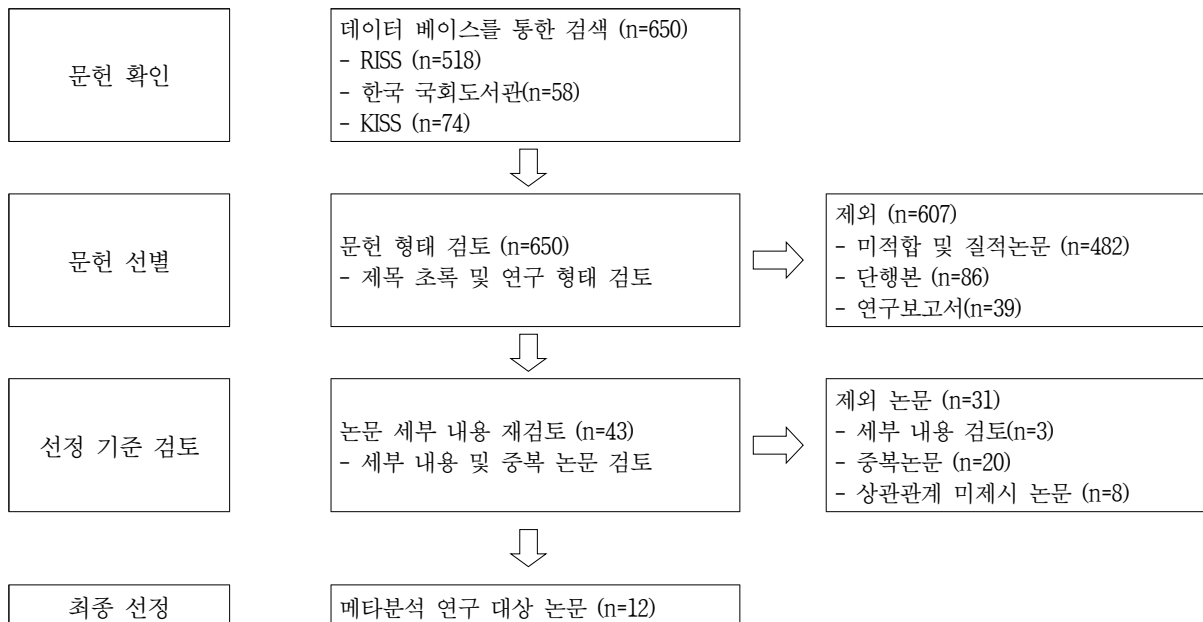
(2) 농촌 독거노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메타분석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 독거노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보다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독거노인의 증가는 사회적 소외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대비한 사회적 보호의 확대가 필요함(정경희, 2011). 고령인의 사회적 소외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악화와 관련이 있음(Cornwell & Waite, 2009). 이러한 문제해결 또는 사회적 보호를 위하여 농촌 독거노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지고, 농촌 독거노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메타분석을 통해 알아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연구방법

- 농촌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메타분석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살펴보고자 함. 본 연구에서는 PRISMA 가이드라인에 따라 체계적 문헌고찰을 위한 연구절차를 따름.
- 즉, 문헌확인, 문헌선별, 선정기준 검토, 최종확정의 단계를 거쳐 자료를 수집하였다(Moher, Liberati, Tetzlaff, Altman, & the PRISMA Group, 2009). 한국의 농촌 독거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검색엔진(RISS), 한국 국회도서관 및 KISS을 이용하여 관련 자료를 검색하였으며 검색 논문의 발행기간은 2023년 8월까지 출간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음
- 본 연구의 대상 자료는 본 연구에서는 2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아래 [그림 5]의 절차를 수행하였고, 연구 검토와 선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협의 및 합의 과정을 거쳐 해결하였음



[그림 5] 연구대상 논문 선정과정 : PRISMA flow diagram

■ 연구결과

- 본 연구 대상으로 포함된 연구의 효과크기, 대상자 유형 및 코칭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32>과 같음

<표 32> 연구대상 논문 및 효과크기

No	연구자	효과크기	독립변수	종속변수	성별	샘플 사이즈	출판형태
1	최연희(2004)	0.201	건강증진행동, 사회적지지, 우울	삶의질	남성 및 여성 독거노인	202	학술지
2	김수현 외(2008)	0.307	연령, 학력, 경제, 사회관계망	삶의질	여성 독거노인	312	학술지
3	강현정 (2009)	0.265	사회활동	삶의 만족도	여성 독거노인	312	학술지
4	이은석(2009)	0.337	건강증진활동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여성 독거노인	224	학술지
5	정미향(2009)	0.274	정서적지지, 도구적지지	생활만족도	남성 및 여성 독거노인	351	학위논문
6	박영준(2010)	0.329	스트레스, 여가만족	심리적복지감	남성 및 여성 독거노인	181	학술지
7	최희정 외(2011)	0.387	건강증진행동	자기효능감	남성 및 여성 독거노인	369	학술지
8	김성자(2013)	0.338	사회관계망, 사회적지지	건강관련 삶의 질	남성 및 여성 독거노인	179	학위논문
9	김하정(2016)	0.515	건강증진행동	삶의 만족도	여성 독거노인	189	학술지
10	윤명숙외(2017)	0.436	우울, 건강행동	삶의 질	남성 및 여성 독거노인	201	학술지
11	김예자(2020)	0.556	종교적영성, 실존적영성, 사회활동, 상실감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여성 독거노인	250	학술지
12	김진실외(2022)	0.546	만성질환수, 연령, 독거기간, 학력	삶의 만족도	여성 독거노인	238	학술지

- 논문 형태별 효과 크기는 아래 표 과 같다. 학술지 논문의 효과크기(d=0.368)가 학위논문의 효과크기 (d=0.292)보다 큰 효과크기를 보였음

<표 33> 논문 형태별 효과 크기

Random effects analysis

구분	x	ES	95% CI		Q	df	p	I ²
			LL	UL				
학술지	51	0.382	0.293	0.465	1732.532	50	0.000	97.114
학위논문	14	0.300	0.226	0.370	80.381	13	0.000	83.827
전체	65	0.332	0.275	0.386	1837.385	64	0.000	96.517

주: x = number of samples, ES=Effect Size (효과크기), Q=각 효과 크기들의 관찰된 분산, df=자유도, I² : 이질성 (총분산 대비 실제 분산 비율)

- 농촌 독거노인의 삶의 질의 전체 효과크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농촌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각 연구들이 이질하다고 판명되어 랜덤효과 모형에 의해 전체 효과 크기를 검증하였다. <표 33>과 같이 랜덤효과 모형으로 측정된 결과 총 65개의 연구에 관한 효과 크기는 0.332로 나타났으며, 전체효과에 대한 95%의 신뢰구간은 0.275~0.386이었다. Cohen(1988)의 기준으로 평균 효과 크기를 해석하면, r이 0.3이면 중간 크기, r이 0.5이면 큰 크기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어서 농촌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상관관계 전체 효과 크기가 중간 정도 효과 크기라고 해석할 수 있음
- 농촌 독거노인 요인과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효과크기 관련해서는 삶의 만족도(d=476)으로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심리적 복지감(d=342)이며, 상대적으로 생활만족도(d=274)는 가장 낮은 효과크기를 보여주고 있음

<표 34> 농촌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효과 크기

Random effects analysis

구분	k	ES	95% CI		Q-value	df	P-value	I ²
			LL	UL				
삶의질	20	0.306	0.231	0.377	181.350	19	0.000	89.523
삶의 만족도	20	0.476	0.264	0.643	1450.874	19	0.000	98.690
생활 만족도	8	0.274	0.176	0.366	53.822	7	0.000	86.994
심리적 복지감	6	0.342	0.303	0.381	12.504	10	0.253	20.023
건강관련삶의질	7	0.320	0.214	0.419	25.933	6	0.000	77.931
전체	65	0.332	0.275	0.386	1837.385	64	0.000	96.517

주: x = number of samples, ES=Effect Size (효과크기), Q=각 효과 크기들의 관찰된 분산, df=자유도, I² : 이질성 (총분산 대비 실제 분산 비율)

- 농촌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를 다시 긍정적 요인에서는 정서적 요인, 인지적 요인, 활동적 요인 및 환경조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긍정적 인지적 요인의 효과(d=0.520)로 가장 크며, 다음은 환경조건(d=0.365)의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부정적 요인에서는 정서적 요인(d=0.496)이 가장 크게 나타남

<표 35> 농촌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효과 크기

Random effects analysis

구분	세부내용	n	ES	95% CI		Q-value	df	P-value	I ²
				Lower	Upper				
긍정적 요인 (60)	정서적요인	9	0.285	0.195	0.371	56.622	8	0.000	0.018
	인지적요인	4	0.520	0.309	0.682	4.405	3	0.000	0.064
	활동적요인	23	0.355	0.332	0.378	159.309	22	0.000	0.026
	환경조건	24	0.365	0.187	0.520	3.885	23	0.000	0.229
부정적 요인 (9)	정서적요인	2	0.496	0.148	0.734	16.759	1	0.000	94.033
	인지적요인	2	0.336	-0.209	0.722	32.715	1	0.000	0.160
	활동적요인	1	0.128	0.001	0.251	0.000	0	0.000	0.000
전체		65	0.332	0.275	0.386	1837.385	64	0.000	96.517

주: n = number of samples, ES=Effect Size (효과크기), Q=각 효과 크기들의 관찰된 분산, df=자유도, I² : 이질성 (총분산 대비 실제 분산 비율)

(3) 다문화 가구 농업인의 심리적 특성 결과

■ 연구의 목적

- 다문화 가구 농업인의 심리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에 관한 인식 유형을 파악하고 각 유형별 특성과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주관성 연구인 Q방법론을 활용

첫째, 다문화 가구 농업인이 느끼는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인식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다문화 가구 농업인이 느끼는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인식유형별 특성은 어떠한가?

■ 연구방법

- Q방법론을 통해 다문화 가구 농업인이 느끼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침
- Q-concourse를 생성하기 위한 문헌연구 및 인터뷰를 실시하고, 33개의 Q-sample을 작성
- 다문화 가구 농업인들에게 심리적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인터뷰를 위한 서면 동의를 얻은 후 P-sample의 위한 인식조사를 실시
- 본 연구는 IRB 승인(승인번호 : DUIRB-202306-21)을 받아 인식조사를 실시함
- Q-sorting을 통해 데이터 수집을 실시하고, KADE(KenQ Analysis Desktop edition) 프로그램을 실시함

■ 연구참여자

- 연구참여자들은 연구주제와 연구목적에 관련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을 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소표본으로 참가자 그룹을 선정함
- 다문화 가구에 해당되는 총30명의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표본이 잡히지 않은 1명을 제외하고 총29명의 대상을 중심으로 연구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 성별로는 남성 7명, 여성 22명의 결과물을 중심으로 분석함. 그 이유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에 따르면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규모를 외국인 배우자 성별로 나누어 보면,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 간 결혼은 소수에 불과하고,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간 결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목적표집 시 한국인 아내를 찾지 못하였음
- 대상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 성별, 결혼여부, 농사유형, 농사기간, 교육수준, 거주지역, 출신국적, 자녀수, 배우자 부모와의 동거여부 등을 제시함

<표 36> P-sample

유형	P	나이	성별	결혼 기간(년)	농사 유형	농사 기간	교육 수준	거주 지역	출신 국적	자녀 수	배우자 부모 동거여 부	Factor wight
1 (N=17)	30	32	여	10+	밭농사	1~4	중졸	전라도	베트남	3	N	10
	8	26	여	5~9	기타	1~4	중졸	충청도	베트남	3	Y	7.37
	16	23	여	1~4	밭농사 논농사	1~4	고졸	전라도	베트남	1	Y	6.88
	21	42	여	10+	논농사	10~19	대졸	전라도	몽골	1	Y	6.68
	11	42	남	5~9	밭농사 논농사	10~19	대졸	충청도	한국	2	N	4.11
	27	52	남	10+	논농사	20~29	고졸	전라도	한국	3	N	3.94
	10	56	남	1~4	밭농사	20~29	고졸	충청도	한국	0	N	3.73
	9	48	남	10+	밭농사 논농사	20~29	고졸	충청도	한국	3	Y	3.21
	25	36	여	10+	밭농사	1~4	초졸	전라도	캄보디아	5	Y	3.09
	28	55	남	10+	논농사	10~19	고졸	전라도	한국	1	N	2.99
	4	41	여	1~4	논농사	1~4	중졸	충청도	베트남	1	N	2.84
	26	56	남	5~9	논농사 기업농	30~39	고졸	전라도	한국	5	N	2.68
	15	50	남	10+	밭농사 논농사	10~19	고졸	경기도	한국	3	N	2.51
	17	35	여	10+	밭농사 논농사	5~9	중졸	전라도	캄보디아	3	Y	1.92
	23	44	여	1~4	밭농사	5~9	중졸	전라도	중국	1	N	1.88
	14	51	여	10+	밭농사 논농사	1~4	대졸	경기도	중국	2	N	1.77
	18	36	여	10+	논농사	10~19	초졸	전라도	캄보디아	3	Y	0.86
2 (N=7)	13	26	여	5~9	밭농사 논농사	5~9	중졸	충청도	베트남	2	N	10.69
	12	38	여	1~4	밭농사	1~4	중졸	충청도	베트남	0	N	7.79
	5	35	여	5~9	밭농사	1~4	대졸	충청도	베트남	2	N	4.29
	1	37	여	5~9	밭농사	5~9	대졸	충청도	베트남	1	Y	3.90
	24	32	여	5~9	논농사 기타	5~9	중졸	전라도	중국	0	N	3.49
	22	35	여	5~9	가공 농업	1~4	대졸	전라도	중국	2	N	3.05
	3	36	여	5~9	과수원	5~9	고졸	전라도	베트남	1	Y	2.24
3 (N=5)	20	37	여	5~9	축산	5~9	중졸	전라도	몽골	1	N	5.81
	19	31	여	5~9	기타	1~4	중졸	전라도	캄보디아	4	N	5.30
	6	31	여	10+	기타	1~4	중졸	충청도	베트남	2	N	2.74
	29	36	여	10+	밭농사	5~9	중졸	전라도	캄보디아	2	N	2.50
	2	32	여	10+	과수원	1~4	중졸	충청도	베트남	2	N	1.99
제외 (N=1)	7	33	여	이혼	과수원	1~4	중졸	충청도	베트남	0	N	

■ 연구결과

- P표본의 Q분류 결과 다문화 가구 농업인이 느끼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인식은 3개 유형으로 분류됨
- 다문화 가구 농업인이 느끼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비슷한 P표본들끼리 묶였기 때문에 3개의 유형을 통해 각 유형별 인식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음
- 유형 1~3의 아이젠 값은 각각 9.7237, 3.1102, 2.3848이며, 3개 유형의 전체변량은 53%를 설명하고 있음
- 각 유형별 설명력은 유형 1은 34%, 유형 2는 11%, 유형 3은 8%로 분석됨

<표 37> 3가지 유형 분류에서의 아이젠값과 설명변량

Type	Type 1	Type 2	Type 3
Eigenvalues	9.7237	3.1102	2.3848
Explained Variance	34	11	8
cumulative % Explained Variance	34	45	53

- 유형을 분석한 결과 3개의 유형이 도출되었고 각 유형 간의 유사성을 알아보기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8>와 같음
- 1유형과 2유형은 .4118, 1유형과 3유형은 .3622, 2유형과 3유형은 .2648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표 38> 각 유형 간 상관관계

유형	1	2	3
1	1		
2	0.4118	1	
3	0.3622	0.2648	1

■ 유형 1 : 가정을 꾸리고 나서 ‘삶에 만족’ 하는 유형

- 유형1은 농촌에서 다문화가정을 꾸리고 삶의 질(Quality of life)이 객관적 그리고 주관적으로 모두 만족하는 유형으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가족구성원을 통해 삶에 만족하였고, 또한 한국에서의 삶을 통해 소득, 자유, 교육 등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있어 충분한 자원과 제도적 지원이 개인의 삶의 만족시킨다고 하여 “가정을 꾸리고 나서 삶에 만족하는 유형” 이라 명명함
- 유형1의 경우 Q18에서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사일을 나눌 수 있는 배우자가 있어서 좋다.’ (Z=1.68), Q11은 ‘힘든 일이 있어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참고 극복할 수 있다.’ (Z=1.3), Q17은 ‘가족들이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 준다고 생각한다.’ (Z=1.29), Q13은 ‘나는 생활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한국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한다.’ (Z=1.16), Q21은 ‘다문화가정을 꾸리고 사는 선택을 통해 나의 삶이 나아졌다고 생각한다.’ (Z=1.15), 마지막으로 Q26에서 ‘배우자가 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힘든 농사일도 정이 간다.’ (Z=1.00)

- 등 가정을 이루고 나서 삶의 만족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고자 한다는 강한 동의를 보임
- 유형1 중 인자가중치가 높게 나온 P30(10.00)은 결혼 10년 이상, 세 자녀를 둔 32세 베트남 아내로 Q18을 선택한 이유로 ‘작고 사소한 일이여도 배우자와 함께 해서 일도 쉽고 힘든 일도 즐겁게 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챙겨주는 걸 보면 피로가 풀린다.’ 라고 응답함
 - P8(7.37)은 결혼5 ~ 9년 미만의 세 자녀를 둔 26세 베트남 아내로 Q11을 선택한 이유로 “문화는 다르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며, 한국문화를 통해 훌륭하게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다.” 라고 응답함
 - 유형1을 살펴보았을 때 외국인이면서 여성 응답에는 Q11과 Q13을 선택이 많았는데 그 이유 중에는 ‘자국보다 한국 교육 및 문화가 좋으며, 자녀들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자녀들을 보면서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 는 응답이 많음(P8, P9, P10, P16, P25, P27, P28)
 - 유형1에서 참여자 중 모든 남성들이 유형1에 포함되었는데 Q18, Q11, Q15문항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는데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이 느꼈지만 결혼을 통해 가족이 생겨 행복하다 (P9, P10, P11, P27)’ 고 응답함
 - 또한 ‘가족과 함께 일을 할 수 있고, 마치는 시간도 빠르고 효율이 높아 행복하다’ 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남성들의 경우는 가족을 만들고 정신적인 부분과 일적인 부분에서 모두 행복함을 추구하는데 비해, 여성들의 경우는 자국의 문화보다 발달된 한국문화를 접하면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행복함을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유형1의 부정응답을 살펴보았을 때 Q2는 ‘가족과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로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할 수 없어 답답하다.’ (Z=-1.788)와 Q7은 ‘나만 애쓰고 있다는 생각에 가족에게 섭섭하다’ (Z=-1.662)에 부정진술문을 제시하였는데 ‘언어 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삶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 할 줄 아니까 전달하는데 아무문제 없다. 만약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통한다면 표정과 몸짓으로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다’ (P8, P15, P27)라고 응답함
 -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유형1의 ‘가정을 꾸리고 나서 삶에 만족하는 유형’ 에 속한 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에서 다문화가정으로 살아가는데 긍정적으로 인식을 가지고 있고,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아 힘든 일도 얼마든지 극복할 만하다고 여기고 있어 다문화가정으로 살아가는데 만족하고 있음
 - 본 연구의 다문화 가구 농업인 중 남자 참여자 7인 모두 유형 1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문화 가구의 심리적 안정 수준이 여성 결혼 이민자보다 남편이 높게 나타난다는 박대식 외(2011)의 연구결과와 같음
 - 또한 언어나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소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 다문화 가구로서의 삶에 만족하는데 이는 다문화 가구 배우자의 문화와 생활습관을 동등하게 인정하고 존중하여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안정된 생활과 단단한 신뢰 관계를 맺고 있었음
 - 그리고 한국인 남편이 배우자의 나라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일수록, 즉 다문화 수용 태도를 보일수록 결혼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음(김인선, 배화옥, 2012; 임춘희, 2014)

〈표 39〉 유형1에서 강한 동의와 비동의를 보인 진술문(>±1.00)

No	Q statement	Z-Score
18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사일을 나눌 수 있는 배우자가 있어서 좋다.	1.684
15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1.628
11	힘든 일이 있어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참고 극복할 수 있다.	1.296
17	가족들이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 준다고 생각한다.	1.286
20	나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부모(배우자부모 포함)가 있어 마음이 편하다.	1.241
13	나는 생활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한국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한다.	1.156
21	다문화가정을 꾸리고 사는 선택을 통해 나의 삶이 나아졌다고 생각한다.	1.151
22	국제결혼을 하고 맞춰가는 과정이 힘들어도 가족을 위하여 견딜만하다고 생각한다.	1.016
26	배우자가 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힘든 농사일도 정이 간다.	1.003
19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만나서 편하게 이야기할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	-1.013
3	나는 사람들이 다문화가정을 특별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하다.	-1.055
4	배우자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대로 고집을 피우는 것 같아 답답하다.	-1.463
1	나는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자존감이 낮다.	-1.469
7	나만 애쓰고 있다는 생각에 가족에게 섭섭하다.	-1.662
2	가족과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로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할 수 없어 답답하다.	-1.788

■ 유형 2 : 문화적응 및 경제적 여건에 대한 ‘어려움’ 을 표출하는 유형

- 유형2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 간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구사능력, 즉 한국어를 얼마나 잘 말 하고, 쓰고, 읽고, 이해하는지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영향을 미침.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어 ‘문화적응 및 경제적 여건에 대한 어려움을 표출하는 유형’ 이라 명명함
- 유형2는 총7명이며 10년 미만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 아내로 구성되어 있음. 유형2의 Q2를 보면 ‘가족과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로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할 수 없어 답답하다.’ (Z=1.95), Q3은 ‘나는 사람들이 다문화가정을 특별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하다.’ (Z=1.43), Q9는 ‘농사일은 수익이 일정하지 않아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Z=1.36), Q24는 ‘나는 문화차이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24, Z=1.29) 등의 진술문에 강한 동의를 나타냄
- 요인가중치가 가장 높은 P13(10.69)과 P12(7.79), P1(3.90), P24(3.49)는 Q2를 가장 강한 동의를 나타내는 진술문으로 선택하였는데 “한국말 뜻을 이해하기가 아직 힘들다. 또한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소통이 되지 않아 힘들다” 라고 어려움을 이야기함
- P12(7.79)는 Q3을 선택한 이유로 “한국문화와 생활습관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외국인이라고 쳐다보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다” 라고 응답함
- P3(2.24)의 경우는 Q9 진술문에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으로 선택하였는데 “우박과 비가 많이 와서 농작물의 피해가 많으면 노력한 것 대비 수익도 줄어 속상하다. 또한 농사가 잘 되더라도 시중에 농작물이 많아져 수익이 줄어들어 힘들다” 라고 이야기 함
- 그러나 Q1의 ‘나는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존감이 낮다’ (Z=-2.295)에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는데 P13(0.69), P5(4.29), P1(3.90)의 경우 “자존감이 낮아질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며, 혼자 사업도 하고 있어 능력도 있어 자존감이 낮을 일이 없다” 고 응답함

-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유형2의 ‘문화적응 및 경제적 여건에 대한 어려움을 표출하는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모두 결혼 10년차 미만의 외국인 아내로 한국의 농촌지역에서 다문화가정으로 살아가는데 언어나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낮은 시선, 농사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느끼고 있음을 표출하고 있음
- 이는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를 살펴본 박대식 외(2011)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여성 결혼 이민자가 남편보다 문화적응 노력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자아존중감도 높음. 그리고 여성 결혼 이민자의 한국 거주 기간이 길수록 문화적응 수준이 높아지는데 거주 기간이 11년 이상인 경우에 심리적 안정 수준이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함
-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2018)에서도 농촌거주 다문화 가구의 부부 갈등 사유로 성격차이, 언어소통문제, 자녀교육·행동 문제, 경제적 문제 순으로 나타남. 그 중 언어소통의 어려움 즉 한국어 문제로 부부 갈등을 겪는 경우가 눈에 띄게 많았으며, 또한 생활비 등 경제적 문제 등으로 부부갈등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유형2의 인식유형과 일치함

〈표 40〉 유형2에서 강한 동의와 비동의를 보인 진술문(〈±1.00〉)

No	Q statement	Z-Score
2	가족과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로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할 수 없어 답답하다.	1.949
3	나는 사람들이 다문화가정을 특별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하다.	1.432
9	농사일은 수익이 일정하지 않아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1.363
24	나는 문화차이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289
30	나는 소통하고 왕래할 수 있는 이웃들이 있어서 좋다.	1.097
22	국제결혼을 하고 맞춰가는 과정이 힘들어도 가족을 위하여 견딜만하다고 생각한다.	1.078
20	나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부모(배우자부모 포함)가 있어 마음이 편하다.	1.056
33	나는 집안일 부담에 있어 배우자와 생각이 달라 불만이다.	-1.284
5	나는 평소에 안먹던 음식을 시도하거나 적응하는 것이 힘들다.	-1.4
7	나만 애쓰고 있다는 생각에 가족에게 섭섭하다.	-1.705
1	나는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자존감이 낮다.	-2.295

■ 유형 3 : 농촌에서 다문화 가족으로 적응하며 살아가는데 ‘주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유형

- 유형3은 다문화 가족으로 농촌에서 적응하며 살기 위해 또는 혼자서 많은 일을 해야 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어 ‘농촌에서 다문화 가족으로 적응하며 살아가는데 주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유형’이라 명명함
- 유형 3은 총 5명으로 공통적으로 30대의 외국인 아내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다는 특징이 있었음
- 유형3이 선택한 긍정 진술문에는 Q32의 ‘농사일로 바쁠 때 누구라도 대신 집안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Z=1.71), Q12 ‘아이와 함께 맛있는 거 먹고 놀러갈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아쉽다.’ (Z=1.61), Q6 ‘나는 문화차이로 인한 불만이 있더라도 참아야한다고 생각한다.’ (Z=1.49), Q27 ‘나는 못 쉬더라도 농사일이 없을 때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Z=1.34), Q31 ‘나는 주변에 자녀양육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 다.’ (Z=1.22)에 가장 동의를 보였음
- 그리고 요인가중치가 높은 P20(5.81)은 Q32를 선택하였는데 ‘농사일을 바쁠 때는 집안일은 누군가 해주었으면 좋겠다. 특히 한국음식을 하는데 할 때 아직 서툴러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응답하였음
 - P19(5.30)는 Q31을 선택한 이유로 “시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친정이 타국이라 자녀 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그리고 P6(2.74)과 P2(1.99)는 Q12를 선택하였는데 ‘농사를 짓느라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없고 아쉽다. 또한 시간이 있더라도 어디를 가야할지 몰라 아이들과의 시간이 부족하여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응답함
 - 하지만 Q10 ‘나는 이웃주민들이 다문화가정을 무시한다고 느낀다.’ (Z=-2.08)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 종합해 볼 때, 유형 3의 ‘농촌에서 다문화 가족으로 적응하며 살아가는데 주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모두 외국인 아내로 농촌에서의 다문화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한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으나 농촌에서의 바쁘고 힘든 삶에 집안일이나 양육까지 해야 하므로 농촌에서의 다문화가정으로 살아가는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음
 -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2018)에 따르면 자녀와의 관계와 부모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자녀에게 한국어를 직접 가르치기 어려움 점’ 또는 ‘자녀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이나 학교생활에 대해 알지 못해서’, ‘다른 학부모들과 대화하거나 정보를 얻기 어려워서’, ‘자녀의 학교숙제나 준비물 잘 챙겨주지 못해서’ 라는 어려움을 꼽으면서 도움을 요구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음
 - 이들의 인구학적 배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형 3은 모두 외국인 아내로서 농사일과 더불어 집안일이나 양육을 도와줄 부모님도 없어 다문화 가족으로 적응하며 사는데 스스로 극복하기 한계가 있어 주변도움을 원하고 있었음

〈표 41〉 유형3에서 강한 동의와 비동의를 보인 진술문(≥±1.00)

No	Q statement	Z-Score
32	농사일로 바쁠 때 누구라도 대신 집안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1.949
12	아이와 함께 맛있는 거 먹고 놀러갈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아쉽다.	1.605
6	나는 문화차이로 인한 불만이 있더라도 참아야한다고 생각한다.	1.489
27	나는 못 쉬더라도 농사일이 없을 때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1.335
31	나는 주변에 자녀양육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1.221
30	나는 소통하고 왕래할 수 있는 이웃들이 있어서 좋다.	1.107
15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1.074
7	나만 애쓰고 있다는 생각에 가족에게 섭섭하다.	-1.036
5	나는 평소에 안먹던 음식을 시도하거나 적응하는 것이 힘들다.	-1.068
33	나는 집안일 부담에 있어 배우자와 생각이 달라 불만이다.	-1.072
8	나는 자녀의 학업문제나 양육에 있어 배우자와 생각이 달라 답답하다.	-1.116
28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배우자의 부모 포함)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1.304
1	나는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자존감이 낮다.	-1.951
10	나는 이웃주민들이 다문화가정을 무시한다고 느낀다.	-2.076

(4) 귀농인의 심리적 특성 결과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귀농인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인식 유형을 파악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는 주관성 연구이다. 본 연구방법은 Q방법론을 활용하였으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음

첫째, 귀농인이 느끼는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인식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귀농인이 느끼는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인식유형별 특성은 어떠한가?

■ 연구방법

- Q방법론을 통해 귀농인이 느끼는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쳤다. Q-concourse를 생성하기 위한 문헌연구 및 인터뷰를 실시하고, 36개의 Q-sample을 작성함
- 귀농인의 심리적 특성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인터뷰를 위한 서면 동의를 얻은 후 P-sample의 Q-sorting을 실시하였고, 자료분석은 KADE(KenQ Analysis Desktop edition)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음. 본 연구는 IRB 승인(승인번호 : DUIRB-202306-20)을 동국대학교로부터 받았음

■ 연구참여자

- Q-sorting에 참여한 귀농인은 총 30명으로 남자 12명, 여자 18명이며, 연령대는 30대 5명, 40대 2명, 50대 8명, 60대 9명, 70대 6명으로 전 연령대가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학력상으로는 대학교 11명, 고등학교 10명, 중학교 5명 순이며 대학원 이상의 학력은 2명, 전문대학과 초등학교는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남.
- 결혼 관계는 재혼한 경우를 포함하여 기혼자가 25명으로 83%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이혼하거나 미혼인 경우에 해당되었음
- 종교는 불교 9명, 천주교 5명, 기독교 3명, 유교 1명 순이며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경우 2명, 기타로 응답한 경우가 10명이었음
- 거주지역은 서울 근교 지역 11명, 충청지역 10명, 경기 지역 9명 순으로 연구에 참여하였음
- 귀농인으로서 연구에 참여한 P-sample의 농사 유형은 복수 응답을 하였는데 밭농사 22명, 과수원 8명, 논농사 5명, 가공농업 2명, 기타 7명으로 응답하였고,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밭농사 위주의 농사 유형의 형태를 가진 것으로 나타남
- 농사 경험의 기간은 10년~20년 사이가 11명, 5년~10년 사이가 10명, 2년~5년 사이가 5명 순이며 20년 이상 농사 경험이 오래되거나 2년 미만의 짧은 농사 경험의 유형이 각각 2명씩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 농사의 경험이 있는 귀농인들이 연구참여자의 약 77%에 해당되는 수치라고 할 수 있음
- 귀농을 한 기간에 대한 응답으로는 5년~10년 사이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년~15년 사이는 7명으로 나타났고, 귀농한지 15년 이상된 연구참여자는 6명이며 반면 5년 미만인 경우는 7명으로 조사되었음
- 귀농하기 전 거주했던 지역으로는 서울지역 15명, 경기지역 7명, 인천지역 4명으로 수도권

지역이 약 87%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지역으로는 충주, 대전 등의 응답자가 있었음

- P-sample이 귀농을 선택한 다양한 이유들 중 퇴직으로 인한 귀농 사유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촌생활에 대한 동경으로 인한 귀농 사유가 8명이었으며 어린 시절에 농촌에 거주했던 경험과 전원생활을 위하여 귀농을 결심한 경우가 각각 4명씩 응답음. 그 외의 귀농 사유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란 응답이 있었고, 나머지는 기타 사유로 응답하였음

<표 42> P-sample의 일반적 특성

Type	P	성별	나이	최종학력	종교	결혼관계	거주지역	농사유형	농사기간	귀농기간	이전거주지역	귀농이유
1	3	남자	66	고등학교	기타	기혼	충청	발농사 기타	10~20년	10~15년	충청 충주	생계유지
	4	여자	56	고등학교	기타	기혼	충청	발농사 논농사 과수원	20~30년	15년이상	서울	농촌생활동경
	5	여자	51	대학교	기독교	기혼	충청	가공농업 기타	5~10년	5~10년	경기	퇴직
	8	여자	59	고등학교	불교	기혼	충청	발농사 기타	10~20년	10~15년	충청 충주	생계유지
	9	여자	65	고등학교	불교	이혼	충청	발농사 기타	5~10년	5~10년	서울	퇴직
	12	남자	74	대학원	불교	기혼	경기	발농사	10~20년	10~15년	인천	농촌생활동경
	14	여자	73	중학교	불교	기혼	경기	발농사	10~20년	15년이상	서울	농촌생활동경
	15	여자	71	고등학교	종교 없음	기혼	경기	발농사	5~10년	5~10년	인천	어린시절거주경험
	19	남자	75	중학교	종교 없음	기혼	경기	발농사	10~20년	15년이상	서울	새로운삶
2	20	남자	65	대학원	천주교	기혼	서울 근교	발농사	5~10년	5~10년	서울	퇴직
	28	남자	30	대학교	기타	미혼	서울 근교	발농사 과수원	2~5년	2~3년	경기	농촌생활동경
	2	여자	61	고등학교	기타	기혼	충청	가공농업 기타	2~5년	4~5년	서울	농촌생활동경
	6	여자	62	전문대학	기독교	기혼	충청	과수원 기타	10~20년	10~15년	대전	퇴직
	10	여자	54	대학교	기독교	미혼	충청	과수원	5~10년	5~10년	인천	기타
	11	여자	65	고등학교	불교	기혼	경기	발농사	10~20년	10~15년	경기	퇴직
	13	남자	70	중학교	불교	기혼	경기	발농사 과수원	20~30년	15년이상	서울	퇴직
	17	여자	68	중학교	불교	기혼	경기	발농사	10~20년	10~15년	서울	전원생활

Type	P	성별	나이	최종학력	종교	결혼관계	거주지역	농사유형	농사기간	귀농기간	이전거주지역	귀농이유
	22	남자	30	대학교	유교	기혼	서울근교	논농사	2~5년	2~3년	경기광주	어린시절거주경험
	23	여자	65	대학교	천주교	기혼	서울근교	밭농사	5~10년	5~10년	서울	전원생활
	24	남자	38	대학교	기타	기혼	서울근교	밭농사 논농사	5~10년	5~10년	경기부천	어린시절거주경험
	27	남자	39	대학교	기타	기혼	서울근교	논농사 과수원	2~5년	3~4년	인천	퇴직
3	1	여자	54	고등학교	기타	이혼	충청	밭농사 기타	5~10년	5~10년	서울	농촌생활동경
	7	여자	59	고등학교	천주교	기혼	충청	밭농사	10~20년	10~15년	충청충주	생계유지
	16	여자	74	중학교	불교	기혼	경기	밭농사	10~20년	15년이상	경기하남	농촌생활동경
	18	남자	68	초등학교	불교	재혼	경기	밭농사	5~10년	5~10년	서울	퇴직
	21	남자	45	고등학교	천주교	기혼	서울근교	과수원	1~2년	1~2년	서울	전원생활
	25	여자	37	대학교	기타	기혼	서울근교	밭농사 과수원	1~2년	1~2년	서울	전원생활
	26	여자	40	대학교	기타	미혼	서울근교	밭농사	5~10년	5~10년	서울	어린시절거주경험
	29	남자	54	대학교	기타	기혼	서울근교	밭농사 논농사	10~20년	15년이상	경기성남	농촌생활동경
	30	여자	50	대학교	천주교	기혼	서울근교	밭농사	2~5년	4~5년	서울	퇴직

- P-sample의 일반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요약해보면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는 50대 이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서울에서 퇴직 후 농촌으로 귀농한 경우가 많다고 파악해 볼 수 있음
- 종교적으로는 불교를 믿는 연구참여자가 가장 많은 편이며, 귀농 후 주로 밭농사를 중심으로 하며 농사에 대한 경험은 대부분 5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귀농을 한 기간은 5년에서 15년 사이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연구결과

- 요인(Factor)을 분석한 결과 <표 38>과 같이 귀농인의 심리적 특성은 3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음. 각 유형의 아이젠 값은 요인 1이 7.1748, 요인 2가 3.8337, 요인 3이 2.3422이며, 각 설명변량값은 요인 1이 24, 요인 2가 13, 요인3이 8로 나타났다. 전체 누적변량은 45%로 설명되고 있음

〈표 43〉 3가지 유형 분류에서의 아이겐 값과 설명변량

Factor	Factor 1	Factor 2	Factor 3
Eigenvalues	7.1748	3.8337	2.3422
Explained Variance (%)	24	13	8
Cumulative Explained Variance (%)	24	37	45

- 유형(Type)을 분석한 결과 3가지 유형이 도출되었고, 각 유형 간의 유사성을 알아보기 위한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다음의 〈표 44〉와 같이 나타났음
- 유형 1과 유형 2는 0.2833, 유형 1과 유형 3은 0.4308로 나타났고, 유형 2와 유형 3은 0.1209로 나타났음. 유형 1과 유형 3이 0.4308로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유형 2와 유형 3이 0.1209로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44〉 유형 간 상관관계

Type	Type 1	Type 2	Type 3
Type 1	1	0.2833	0.4308
Type 2	0.2833	1	0.1209
Type 3	0.4308	0.1209	1

- 각 유형별 인자가중치(Weight)를 살펴본 결과 다음 〈표 45〉과 같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표 45〉 각 유형별 인자가중치

Type 1 (N=11)		Type 2 (N=10)		Type 3 (N=9)	
P-sample	Weight	P-sample	Weight	P-sample	Weight
p=03	6.7992	p=02	7.4679	p=01	4.5045
p=04	5.2149	p=06	9.2369	p=07	7.1234
p=05	7.3597	p=10	5.8592	p=16	3.2954
p=08	5.9499	p=11	5.4184	p=18	3.1079
p=09	7.3145	p=13	9.3490	p=21	5.9499
p=12	7.1217	p=17	-7.7047	p=25	4.5725
p=14	5.5740	p=22	9.7862	p=26	9.2110
p=15	8.4013	p=23	4.6772	p=29	9.1123
p=19	10.0000	p=24	5.9255	p=30	5.8592
p=20	4.5029	p=27	2.2534		
p=28	3.6362				

■ 유형 1 : 체계적 준비를 기반한 정서적으로 만족하는 유형

- 유형 1의 특성 및 인식을 동의하는 진술문과 동의하지 않은 진술문을 통해 분석해 볼 수 있음. 귀농에 있어 전략적 접근과 준비의 중요성을 확고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인 ‘귀농하기 전의 준비가 철저하여야 성공적인 귀농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Q3, $z=1.716$)’ 에서 잘 나타남
- 또한 농사일의 물리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오는 정서적 만족과 안정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는 ‘농사일은 몸은 힘들지만 마음이 편안하다(Q16, $z=1.653$)’ 및 ‘농사 일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기 때문에 보람이 느껴진다.’(Q8, $z=1.367$)라는 진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농촌의 한계성과 관련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불편하다.’ (Q30, $z=1.474$)에서 나타남. 그리고 이 유형은 계절과 날씨의 변화에 따른 농사의 영향을 섬세하게 파악하며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계절과 날씨의 영향은 농사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민감하다(Q33, $z=1.136$)’ 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반면 가장 비동의한 진술문을 통하여 자녀의 교육과 문화적 적응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갖지 않는 것으로 보임. ‘자녀를 위하여 귀농을 하게 되는 경우에 만족도가 높다(Q2, $z=-2.050$)’ 와 ‘자녀가 도시 문명의 생활을 잊을까 염려가 된다(Q7, $z=-1.995$)’ 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이외에도 ‘귀농하면서 원주민과 잘 어울리려고 노력하지만 위축감이 들기도 한다(Q15, $z=-1.072$)’ , ‘도시생활의 경험이 농사일에 대한 판로개척 등 다방면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Q24, $z=-1.099$)’ 라는 비동의 진술문을 통해 원주민과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부담감과 도시 경험이 농촌에서의 성공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됨. 또한 ‘도시 생활에 부적응하여 귀농했다고 생각할까봐 걱정이 된다(Q36, $z=-1.977$)’ 에서 귀농 이유에 대한 외부 인식과 관련한 자기 인식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음
- 인자가중치가 높은 P19는 “도시에서 생활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업 이후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살게 되어 좋다” 라고 하였으며, P15는 “농업 외 다른 수입이 있으며, 농업을 지으며 사는 것이 마음이 편안하다” 라고 하였음
- 따라서 유형 1의 귀농인들은 귀농과 관련된 체계적 준비와 실제 농사 경험에서의 만족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동시에 원주민과의 관계나 도시 경험에 대한 특별한 기대나 부담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표 46〉 유형 1에서 동의와 비동의를 보인 진술문과 표준점수 (Z-score > ±1.00)

Q	Statement	Z-score
3	귀농하기 전의 준비가 철저하여야 성공적인 귀농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1.716
16	농사일은 몸은 힘들지만 마음이 편안하다.	1.653
30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불편하다.	1.474
8	농사 일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기 때문에 보람이 느껴진다.	1.367
33	계절과 날씨의 영향은 농사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민감하다.	1.136
15	귀농하면서 원주민과 잘 어울리려고 노력하지만 위축감이 들기도 한다.	-1.072
24	도시생활의 경험이 농사일에 대한 판로개척 등 다방면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1.099
27	귀농인의 새로운 농업 방식 때문에 원주민들이 피해본다는 말을 들을 때 속상하다.	-1.208
36	도시 생활에 부적응하여 귀농했다고 생각할까봐 걱정이 된다.	-1.977
7	자녀가 도시 문명의 생활을 잇을까 염려가 된다.	-1.995
2	자녀를 위하여 귀농을 하게 되는 경우에 만족도가 높다.	-2.050

■ 유형 2 : 예측하지 못한 현실적인 귀농 생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유형

- 유형 2의 귀농인들은 농촌의 복잡한 현실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은 ‘계절과 날씨의 영향은 농사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민감하다(Q33, z=2.329)’ 는 진술문에서 잘 나타남
- 또한 이 유형은 농촌의 일상생활의 제약 사항과 의료 서비스의 한계성을 인지하며,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불편하다(Q30, z=1.804)’ 와 ‘도시와는 다르게 농촌은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불편하다(Q29, z=1.540)’ 의 진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이 외의 동의 진술문 중 ‘귀농하기 전의 준비가 철저하여야 성공적인 귀농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Q3, z=1.537)’ , ‘귀농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은 정착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Q28, z=1.304)’ 등에서 귀농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리고 성취감에 대한 인식도 중요한 부분으로 ‘농산물 판매 이후 고객으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람을 느낀다(Q35, z=1.274)’ 를 통해 고객의 긍정적인 반응에 기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반면 귀농 생활의 일상적인 감사함이나 스트레스의 차이에 대한 인식은 다르게 나타남. ‘나는 귀농 후 감사한 마음을 자주 갖게 된다(Q25, z=-1.034)’ , ‘도시에서의 직장 일과 비교할 때 농사일이 스트레스가 훨씬 적다고 생각한다(Q4, z=-1.041)’ 의 진술문들 통해 유형 2는 귀농 생활에 대한 단순한 감사함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큰 차이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소박한 삶의 즐거움에서 오는 만족을 찾는 가치를 중요시 여긴다(Q22, z=-1.120)’ 와 ‘귀농인들은 경제적 안정보다는 자연에서 주는 정서적 안정감을 더 우선시한다(Q23, z=-1.139)’ 등의 진술문은 개인적 혹은 경제적 요소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

- 을 유추해 볼 수 있음
- 가장 비동의하는 진술문인 Q5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사는 농촌 생활이 만족스럽다($z=-1.583$)’ 와 다음으로 비동의 하는 Q2 ‘자녀를 위하여 귀농을 하게 되는 경우에 만족도가 높다($z=-1.304$)’ 의 진술문을 통해 사회적 비교나 자녀의 교육에는 만족이 높지 않은 태도를 보임
 - 인자가중치가 높은 P22는 “농촌의 원주민들이 외지인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농사일이 바빠 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였으며, P13은 “편의시설이 부족하지만 아주 불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인으로서의 삶을 실패할 수도 있다” 라고 하였음
 - 따라서 유형 2의 귀농인들은 예측하지 못한 농촌의 복잡한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귀농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은 이러한 진술문을 통해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음

〈표 47〉 유형 2에서 동의와 비동의를 보인 진술문과 표준점수 (Z-score > ±1.00)

Q	Statement	Z-score
33	계절과 날씨의 영향은 농사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민감하다.	2.329
30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불편하다.	1.804
29	도시와는 다르게 농촌은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불편하다.	1.540
3	귀농하기 전의 준비가 철저하여야 성공적인 귀농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1.537
28	귀농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은 정착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1.304
35	농산물 판매 이후 고객으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람을 느낀다.	1.274
11	귀농의 삶에서 농사 이외의 노동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050
25	나는 귀농 후 감사한 마음을 자주 갖게 된다.	-1.034
4	도시에서의 직장 일과 비교할 때 농사일이 스트레스가 훨씬 적다고 생각한다.	-1.041
22	소박한 삶의 즐거움에서 오는 만족을 찾는 가치를 중요시 여긴다.	-1.120
23	귀농인들은 경제적 안정보다는 자연에서 주는 정서적 안정감을 더 우선시한다.	-1.139
14	농사하면서 시간적인 자유로움이 있어서 좋다.	-1.148
2	자녀를 위하여 귀농을 하게 되는 경우에 만족도가 높다.	-1.304
5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사는 농촌 생활이 만족스럽다.	-1.583

■ 유형 3 : 스트레스 없이 귀농 생활의 혜택을 누리는 유형

- 유형 3에서 가장 동의한 진술문은 ‘연고가 있는 상태에서 귀농하는 것은 혜택이 크다(Q1, $z=1.765$)’ 이며, 다음으로 동의한 진술문은 ‘농사일은 몸은 힘들지만 마음이 편안하다(Q16, $z=1.381$)’ 임. 이러한 진술문들에서 확고한 내면의 안정감을 지녔다는 심리적 특성이 잘 드러남
- 이는 농촌에서의 생활이 주는 긍정적 정서기능에 대한 만족과 평온함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또한 농업 활동 중의 물리적 노력과 육체적 노동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중히 여긴다고 볼 수 있음
- 이외에도 외부 환경의 변동 요인에 대한 민감한 반응은 ‘계절과 날씨의 영향은 농사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민감하다(Q33, $z=1.047$)’ 라는 진술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이로 유추해 볼 때 유형 3은 주변 환경과의 연결성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보여줌

- 반면 동의한 진술문은 ‘도시 생활가장 비에 부적응하여 귀농했다고 생각할까봐 걱정이 된다(Q36, $z=-2.277$)’로서 귀농의 주된 동기와 그에 따른 외부 인식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여줌. 다음으로 ‘자녀가 도시 문명의 생활을 잇을까 염려가 된다(Q7, $z=-2.106$)’를 비동의한 진술문으로 선택하였는데 이는 귀농의 경험이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인식으로 분석할 수 있음
- 다른 비동의 진술문 중 ‘도시와는 다르게 농촌은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불편하다(Q29, $z=-1.254$)’, ‘젊은 세대 귀농인들은 노인 세대 원주민과 어울리기 힘들다고 생각한다(Q26, $z=-1.359$)’ 등과 같은 진술문들은 유형 3의 귀농인들에게 주요 관심사가 아닌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이는 유형 3의 귀농인들이 독립적인 사고방식을 지니며 자신의 삶과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됨
- 이를 통해 유형 3은 타인의 시각이나 사회적 기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유추해 볼 수 있음
- 인자가중치가 높은 P26은 “농산물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귀농의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하였으며, P29는 “농촌의 생활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이 덜하며, 스스로가 처한 환경에 최선을 다하여 적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음
- 따라서 유형 3은 귀농과 관련된 긍정적인 이점과 만족감을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8〉 유형 3에서 동의와 비동의를 보인 진술문과 표준점수(Z-score) > ±1.00

Q	Statement	Z-score
1	연고가 있는 상태에서 귀농하는 것은 혜택이 크다.	1.765
16	농사일은 몸은 힘들지만 마음이 편안하다.	1.381
35	농산물 판매 이후 고객으로 부터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람을 느낀다.	1.371
4	도시에서의 직장 일과 비교할 때 농사일이 스트레스가 훨씬 적다고 생각한다.	1.121
14	귀농하면서 시간적인 자유로움이 있어서 좋다.	1.053
33	계절과 날씨의 영향은 농사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 민감하다.	1.047
29	도시와는 다르게 농촌은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불편하다.	-1.254
26	젊은 세대 귀농인들은 노인 세대 원주민과 어울리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1.359
27	귀농인의 새로운 농업방식때문에 원주민들이 피해본다는 말을 들을때 속상하다.	-1.451
7	자녀가 도시 문명의 생활을 잇을까 염려가 된다.	-2.106
36	도시 생활에 부적응하여 귀농했다고 생각할까봐 걱정이 된다.	-2.277

5) 결론 및 제언

- 연구에 참여한 농업인 전체의 정신건강 상태는 비교적 건강하고 양호한 수준임. 그러나 귀농인 다문화인/독거노인 등 하위집단에 따른 개별 심리적 건강상태에서 그 차이를 드러내는 바, 집단의 특성에 적합한 진단 및 변별 평가 체계의 도입이 필요함
- 귀농인의 경우, 정서문제 영역에서, 강박성격, 강박증등의 문제영역이 주의/위험수준으로 나타나고, 현실적응 영역에서는 조증의 문제영역이 동일한 빈도로 주의/위험수준과 문제수준의 어려움으로 나타났음. 이는, 이전의 삶의 방식과 다른 농업인으로서의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역할과 업무 완수에 대한 불안이 작용하여 강박 등의 문제로 드러날 수 있으며, 농업인으로서의 삶을 보다 힘차고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과활동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 됨. 따라서, 이전의 삶의 방식과 형태가 달라진 귀농인들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반짝하는 추진력이 아닌 지구력 있는 삶의 방식과 태도를 학습하도록 하여 농업인으로서의 삶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예> EAP)이 필요함
- 다문화가구의 경우, 정서문제 영역에서는 거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현실적응 영역에서는 조증영역에서 문제수준의 어려움을 나타냈고, 기타 영역 중 중독이 주의/위험수준에 있었음. 이는, 다문화 가구 구성원들의 정신건강 안정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음. 그러나 다문화가구에 조증및 중독의 문제 등이 다소 잠재하고 있다는 것은, 다문화인들이 현실적응을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으나 쉽게 드러내 놓지 못하는 심리 내적인 문제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어려움들이 다문화가구 농업인들의 정신건강을 해치지 않고 농업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잠재 요인들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변별 평가 체계의 도입이 필요함
- 독거노인의 경우, 정서문제 영역 중 여러 영역에서 주의/위험수준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으나, 현실적응 영역에서는 거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고, 기타 영역 중 수면문제, 자살과 낮은 조절력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음. 이는, 독거노인이 현실적응을 위협하는 문제영역의 어려움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으나, 정서문제영역의 문제들과 기타영역의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독거노인을 포함한 고령인들이 갖고 있는 발달상 노화의 국면과 이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와 심리적 어려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고령인들의 신체적 노화에 따른 심리사회적 변화를 수용하고, 자신의 일생을 건강하게 회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함
- 귀농인, 다문화가구, 독거노인의 스트레스를 측정된 결과, 독거노인이 귀농인과 다문화가구 농업인의 스트레스 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농촌 지역 내 취약계층인 독거노인이 발달상 노화, 건강상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와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임. 특히 농촌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노인의 복지욕구 충족과

건강상태의 향상을 돕기 위한 복지서비스 및 재화가 부족하며, 사회적·문화적으로 소외되어 복지혜택의 불평등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상황은 취약계층인 독거노인으로 하여금 문제 상황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어려움을 주게 되어서 다른 농업인에 비해서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될 수 밖에 없음

- 그러므로 농촌 거주 독거노인들이 사회적, 문화적 복지서비스 혜택 등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을 발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조창완, 2019)
- 귀농인, 다문화가구,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측정한 결과, 마찬가지로 독거노인이 귀농인, 다문화가구 농업인의 삶의 질보다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음. 여기서 삶의 질은 3가지 영역 즉 ① 정서적 만족 ② 자아실현 ③ 자기존중으로 측정하였으며, 3가지 영역 모두 독거노인이 낮은 삶의 질을 나타내었음
- 그러므로 독거노인의 정서적 만족과 자아실현, 자기존중을 목표로 개발된 상담 및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노인복지실천이 추진되어야 함. 특히 독거노인의 사례 관리가 진행되는 독거노인 종합센터 및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농촌 지역 내 독거노인을 모니터링하고 가족 지지체계가 미약한 독거노인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방법으로 가족들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정서적 감정 공유를 통한 정서적 만족을 도모하고 가족간의 정서적 유대감의 향상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예를 들어 가족들과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농촌 지역 가족캠프행사 등 가족적 특성을 지닌 프로그램 및 사업이 요구됨.
- 독거노인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간이 척도 개발이 요구 됨. 본 연구를 통하여 독거노인의 경우 심리적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배우자에 대한 그리움, 가족의 생산성의 상실, 건강에 대한 상실감 등 다양하며 유형에 따라서는 매우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때문에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필요
- 독거노인은 심리적 특성이 유형별로 매우 상이함으로, 각 유형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척도를 통한 심리적 특성이 파악되면, 고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대상을 선별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 독거노인 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도입할 때 독거노인 농업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별 다양성을 인지하고 접근하는 정책유형의 다양성 뿐만 아니라 남성 독거노인과 여성 독거노인의 심리적 특성이 다름이 파악되어 이들에 맞는 정책이 요구 됨. 예를들어,남성 독거노인의 경우 돌봄의 요구가 강하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메타분석의 결과 삶의 질 관련하여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을 고려할 때 독거노인은 생활에서의 어려움이 해소될 필요성을 보여 줌
- 공통적으로 다문화가구 농업인들은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과 역량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초창기 정착시기에 있는 다문화가구 농업인들은 언어소통 및 적응의 어려움이 있어 가정과 경제

적 책임감이 강한 다문화가구 농업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녀와의 소통, 심리적, 물리적 지원이 요구 됨

- 다양한 다문화가구 농업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혜택의 접근성이 상이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다문화가구 농업인들이 있는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프로그램 접근성이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하여 방문 프로그램 또는 메타버스 활용이 요구됨. 또한 다문화가구의 농업인들은 스스로의 삶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에 동의 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음. 특히 다문화가구 남성 배우자들은 가족을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만족스러움을 보여주었음
- 체계적인 준비가 성공적인 귀농을 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음. 기존의 귀농인 정책이 체계적이지만 연령에 따라 제한적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귀농인들이 존재함으로 보다 폭 넓은 연령대의 예비 귀농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귀농의 확대를 위해서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홍보가 필요함
- 귀농 생활에서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귀농인들을 위하여 적응 프로그램이 필요함. 또한 기존의 귀농인을 위한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 역량있는 원주민과의 멘토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귀농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가 요구됨
- 인구학적 배경이 귀농인의 심리적 특성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외에 어떠한 요소들이 이들의 유형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함. 단, 퇴직 귀농인이 생활적응의 어려움에 대한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의 귀농 동기를 명확히 통찰할 수 있는 체계적 과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이후 사업을 제안하고자 함



[그림6] 지속가능한 농업 커뮤니티

- 본 사업을 통하여 각 하위집단에 따른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 또한 기존의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후 이를 기반으로 본 사업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접근 용이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예를 들면, 기존 활용도가 적은 마을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접근성이 어려워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대상들을 위해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여야 할 것이 요구됨
- 이러한 발전적인 이후 사업을 고려할 때 ‘농업심리케어 코치(가안)’ 과 같이 통합적인 역량을 갖춘 인력에 대한 발굴이 필요함. 즉, 기존의 ‘치유농업사’ 와 농촌의 ‘생활지원자’, 그리고 ‘사회적 농업’ 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 치유농업은 개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중심으로 하는 반면, 사회적 농업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적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중심으로 함. 둘 다 농장 환경과 농업 활동을 활용하지만 그 목적과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음. 그러나, 해외 국가들의 정책 및 운영과 프로그램 등에서 치유농업과 사회적 농업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생활지원사는 노인돌봄에 특화되어 있고, 자격조건이 엄격하지 않음
- 따라서 프로그램, 환경, 인력 등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로, 농업인의 심리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농촌과 그 외 지역의 연결을 통하여온 국민의 심리적인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방안과 인력 양성을 위한 추후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권선중 (2014). 간이정신진단검사 II (KSCL-95) 매뉴얼.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강대구 (2006). “귀농자의 귀농유형별 영농정착과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8.2 : 23-53.
- 국토교통부 (2021).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III : 다문화 가구 증가” . 국토지리정보원.
- 김백수 & 이정화 (2013). “귀농인의 결혼만족도와 마을 공동체의식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 역사회복지학 0.47 : 361-382.
- 김성수 (2014). “농식품 6차 산업의 성공사례와 발전방안.” 한국외식산업학회 학술대회 2014.1 : 43-57.
- 김세혁, 김현 & 김태균 (2022). “귀농인의 경제 및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농업경영정책연구 49.4 : 563-580.
- 김이선 (2019).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 심층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D_R859_1.
- 김자영 (2017). 노인의 성공적 노화 요소의 삶의 만족도 영향 연구: 성인자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 복지학, 57, 159-182.
- 김진실 , 이현주 & 박소정 (2022). “농촌 여성독거노인의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공동거주 제 이용여부의 조절효과 검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50.1 : 53-75.
- 김진희 & 박옥임 (2008). 농촌과 도시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 비교: 전라남도 지역 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18(1), 127-160.
- 김홍규 (2008). “Q-블럭과 Q-도구의 일치도 연구.” 주관성연구 -.16 : 5-16.
- 농림축산식품부 (2023.03.28.).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심리적 특성 탐색연구” .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527호.
- 문승태 & 김소라 (2012). “귀농인의 삶의 질 인식 수준.”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4.1 : 1-21.
- 문지현 & 김다혜 (2018).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탐색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1 : 44-54.
- 박대식, 마상진 & 권인혜 (2011).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 본연구보고서 : 1-252.
- 보건복지부 (2022). “노인실태조사(담당자 : 오선영)” .
- 송은경 & 손연정 (2011). “지역사회 거주 독거 여성노인의 체질량 지수, 지각된 건강상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20.4 : 376-385.
- 신혜숙 (2007). “한국 독거 여성노인의 생활적응.”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7 : 1098-1107. Q 방법론적 접근.
- 양승민 & 연문희 (2009).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스트레스 요인과 반응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심리학 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4), 943-966.
- 여성가족부 (2023). “제 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발표” . 공청회.
- 원미라 (2013). 여성 독거노인의 우울증 경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경숙 (2005).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향상특별법개요 및 복지분야 기본계획 (안). 농촌의학. 지역보건, 30(3), 327-337.
-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주보혜, 남궁은하, 이선희, 정경희, 강은나 & 김경래 (2020). 2020년도 노인실 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은경, 나승일 (2009).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전환학습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1(2), 1-27.
- 이종화 (2005). 여성 독거노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 및 건강증진행위. 정신간호학회지, 14(2), 109-118.

- 이현경, 김경수, 최동필, 최원종 & 박수인 (2019).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사고 경험률 및 건강관련 삶의 질 비교.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1(2), 717-731.
- 장덕희 & 이경은 (2013). “독거노인의 유사가족 관계와 우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0.46 : 229-254.
- 전미리 (2022). “귀농·귀촌인의 갈등경험이 주민관계, 이주 만족도, 지역사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 - 경상남도 의령군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 *농촌계획* 28.3 : 61-72.
- 전현정 (2016). 농촌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 정경희 (2011).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72, 1-8.
- 정순돌, 정세미, 김솔지, 김은주 & 주경희 (2018). “독거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독거기간에 따른 집단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3.2 : 315-336.
- 정현숙 (2010). 미혼남성농업인의 생활특성과 농촌생활만족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4), 1-30.
중앙적성연구소 홈페이지
https://www.cyber-test.co.kr/product/detail.html?product_no=269&cate_no=38&display_group=1
- 조원지 (2022). 전북 농촌주민의 삶의 질 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 조창완 (2019).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독거노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증평군을 중심으로.” 충주 : 韓國交通大學校. 석사학위논문
- 최세영 (2020). 노인의 건강상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 가족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지, 황정임 & 신호연 (2014). “귀농정착자의 정주만족도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5.3 : 321-338.
- 충북미래기획센터 (2015.01). “충북 동향 전망대 (2015. 1월호)” .
- 통계청 (2013). “귀농·귀촌인” .
- 통계청 (2021) <https://url.kr/fpiolx>
- 하민정 & 이혁구 (2019). “농촌지역 여성 독거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71.2 : 143-174.
- 홍형욱 (2013). “다문화가정 주거의 연구를 위한 접근방법과 쟁점.” *Human Ecology Research(HER)* 51.6 (2013): 649-663.
- 황영모 (2008). 전북 농업인의 주관적 삶의 질 수준에 대한 통계적 탐색. *지역과 농업*, 3, 51-81.
- Buber, I., & Engelhardt, H. (2008). Children's impact on the mental health of their older mothers and fathers: findings from the 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 *European Journal of Ageing*, 5(1), 31-45.
- Cornwell, E. Y., & Waite, L. J. (2009). Social disconnectedness, perceived isolation, and health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50(1), 31-48.
- Hu, C. Zhao, D. Gong, F. Zhao, Y. Li, J. & Sun, Y.(2020). Risk factors for suicidal ideation among the older people living alone in rural region of China: a path analysis. *Medicine*, 99 (2020), e21330-e21330.
- Deegan, A., & Dunne, S. (2022). An investigation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farmer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50(7), 3054-3069.
- Kim, J. Y., Seo, Y. K., Lee, J. Y., Kang, W., Chee, I. S., Choi, K. Y., & Jung, I. C. (2019). Efficacy and safety of oral SOCG in treatment of major depressive disorder: A protocol for a phase II,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 controlled, parallel-groups, dose finding exploratory study. *Medicine*, 98(35).

- Kutubaeva, R. Z. (2019). Analysis of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on the example of Sweden, Austria and Germany. *Population and Economics*, 3(3), 102-116.
- Moher, D., Liberati, A., Tetzlaff, J., Altman, D. G., & The PRISMA Group (2009).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The PRISMA Statement. *PLoS Medicine*, 6(7), 1-6.
- Park, J.H.; Min, S.; Eoh, Y.; Park, S.H. (2021). The elderly living in single-person households in South Korea: A latent profile analysis of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Qual. Life Res.* 30, 1083-1092.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11136-020-02693-1>.
- Ramos, A. K., Su, D., Lander, L., & Rivera, R. (2015). Stress factors contributing to depression among Latino migrant farmworkers in Nebraska. *Journal of immigrant and minority health*, 17, 1627-1634.
- Smith, J., Borchelt, M., Maier, H., & Jopp, D. (2002). Health and well-being in the young old and oldest old. *Journal of Social Issues*, 58, 715-732.